이라크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2
3. 한국과의 주요이슈 /9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10
2. 주요 산업 동향 /17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21

III. 무역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2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3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24
대한수입규제동향 /26
관세제도 /26
주요인증제도 /26
지적재산권 /26
통관운송 /27

Ⅳ.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투자환경 /28
외국기업 투자동향 /30
우리기업 투자동향 /31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주요 투자법 내용 /31
진출형태별 절차 /34
투자입지여건 /44

3. 사업관리
노무관리 /46
조세제도 /48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49

Ⅴ.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특성 /49
2. 물가정보 /52
3. 바이어발굴 /53
4.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53
5.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56
6. 이주정착 가이드 /56
7. 출장가이드 /57

I992 MAGELLAN GeographixSM Santa Barbara, CA (800) 929-4627

Ⅰ.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이라크 공화국(Republic of Iraq)
위치	중동지역 중북부
면적	437, 072㎢(한반도의 2배)
기후	건조한 사막성 기후: 여름(5-7월 38-49도), 겨울(낮 온화, 밤 한랭)
수도	바그다드 (Baghdad)
인구	약 2,890만 명 (2007년, EIU 추정)
주요도시	Baghdad(630만명), Basra(193만명), Babil(142만명), Nineveh(135만명), Dhi Qar(154만명), Diyala(126만명), Anbar(126만명) 등
민족	아랍계 82%, 쿠르드계 13%, 기타 5%(페르시아, 투르크만, 아시리아, 아르메니아 등)
언어	아랍어(공용어), 쿠르드어(제2 공용어)
종교	이슬람교 (97%: 시아파 60%, 아랍계 수니파 24%, 쿠르드계 수니파 13%), 기독교 등 기타 3%
건국(독립)일	1932년 10월 3일 (영국의 위임통치 종료)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실권자)	○ 국가원수: 대통령 Jalal Talabani ○ 취임일 2005.4월
	○ 총리: Nouri al-Maliki ○ 취임일 2006.5월 (2010년 임기 종료)

자료: EIU, BMI

나. 경제지표

GDP	US$ 561억 78백만(2007년, EIU 추정) * 2007년 평균 환율: U$1= IQD 1,216
실질경제성장률	5.9%(2007)
1인당 GDP	US$ 2,274(2006년)
실업률	17.5% (2006년)
물가상승률	30.7% (2007년)
화폐단위	Iraq Dinar (ID)
환율	US$1= ID 1,197 (2008.6월 평균환율)
외채	US$ 1,009억(2007년 말)
외환보유고	US$ 256억(2007년 말)
산업구조	제조업(58.8%), 서비스업(26.7%), 농업(11.9%) (2007년 추정)
교역규모	○ 2006년 - 수출: US$284억 - 수입: US$215억 - 무역흑자: US$69억 ○ 2007년 - 수출: US$381억 - 수입: US$248억 - 무역흑자: US$133억
교 역 품	○ 수출: 원유, 대추야자, 양피, 양모 등 ○ 수입: 식품, 의약품, 기계류, 소비재 등

자료: 이라크 기획개발부, EIU

다. 한-이라크 관계

체결협정	평화협정('85), 체육협력의정서('87), 외교 공관 부지교환 협정('87), 무역. 경제기술 과학협력협정('83), 항공협정('85)
교역규모	○ 3,289.7백만 달러(2007년) - 수출: 209.9백만 달러 - 수입: 3,079.8백만 달러
교역품	○ 우리나라 수출: 승용차, 연초류, 화물자동차, 발전기, 자동차부품 등 ○ 우리나라 수입: 원유, 양가죽
투자교류	유전개발 투자 진행 중
교민/지사원 근로자	약 84명 (2007. 12월), 아르빌 자이툰 부대(650명)내 거주. 바그다드에는 대사관, KOTRA 무역관, KOICA 사무소외에 교민은 없음.

자료: 이라크 기획개발부, 한국무역협회, 한국 외교통상부

2. 정치 사회 동향

이라크는 06년 5월 4년 임기의 정식 정부 각료 인선을 마치고 말리키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공식 출범하였다.

이라크의 중앙정부 조직은 대통령, 부통령 2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위원회 (Presidential Council)와 실질적인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 및 2명의 부총리, 그리고 34개 부처장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조직은 전국에 바그다드를 포함 18개 주가 있으며 이들 주지사는 지방자치제에 따라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도록 하고 있다. '08년 3월 전국 규모의 지방선거('08.10.1)를 위한 지방선거법의 제정이 진행 중이며, 8월 말 기준, 정파 간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내 선거 실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분리되어 있고 행정부 수반인 탈라바니 대통령은 쿠르드계로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긴 하나 각 부처의 행정에 대한 실권은 총리가 관장하고 있어 대통령의 권한은 제한적이다. 총선에서 승리한 이슬람 시아파 연합당의 말리키 총리가 내각을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국가 통합 및 국민 화합, 치안 확보 등 국가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파·종파 간 첨예한 대립, 종파내 정치세력간 대립, 민병대 및 테러세력의 활동 등으로 정치적·사회적 안정 확보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의 양대 종파인 시아파와 순니파는 정치 이념과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독자적 정파를 형성하고 있으며, 북부 쿠르드지역에는 쿠르드 지방정부가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고 독자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정파는 연방제, 석유법, 지방선거, 연합군 지위, 키르쿠크 귀속 등 여러 정치 현안을 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말리키 정권은 시아파와 쿠르드의 연정으로 내각이 정파별 지분에 따라 구성되어 있어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국가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파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종전 후세인 정권의 바트당 인사들에 대한 공직 복귀를 허용하는 탈바트당법(De-Baathification law)이 '08.2월에 제정되었으며, 수감 중인 무장저항세력 용의자들에 대한 사면법을 '08.3월에 제정하여 국민 화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연기되어 왔던 지방선거를 '0내에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 권한법을 제정하고, 지방선거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대한 논의가 순조롭게 타협이 이루어지면 '08.10월 1일에 지방선거가 개최되어 지방 정부를 통한 지역 개발, 치안 안정 등이 보다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기대되나 8월 말 기준, 정파 간의 이해 대립으로 일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라크 경제 재건에 가장 중요한 석유법 제정은 지방정부의 권한 범위, 외국기업의 역할 등에 관한 중앙정부와 쿠르드 지방정부 간 이견, 시아파와 순니파 간 이견 등으로 '07. 2월 국회에 상정된 이후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정치 일정과 경제 재건의 순조로운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라크 치안 상황은 종전 이후 순니파 저항세력의 준동, 시리아 등지에서 유입된 알카에다의 테러활동 등이 격화되면서 '06년말까지 악화 일로를 치달았다. '07.2월 미군 증파로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미군의 안정화 작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다국적군의 전략이 지역 중심의 치안확보 작전으로 바뀌면서 안바르주 등 순니파 지역에서 자체 지역 치안대(Sons of Iraq, Awakening Council 등)를 조직하여 지역 치안을 확보하면서 '07년 하반기부터 테러 건수와 사망자 수가 급격히 줄어 들고 치안 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08.3월 들어서 정부의 민병대 해체 및 정부군 편입이 본격화되면서, 해체를 거부하 는 사드르파의 마흐디 민병대와 정부군 간에 남부지역 바스라를 중심으로 교전이 격화되면서 수도인 바그다드까지 양측 간 교전이 발생하여 치안 상황이 다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악화되었다. 하지만 5월 이후 사드르파의 휴전으로 치안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이라크 정부의 치안전력이 부족하여 전국 차원의 치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북부 쿠르드지역과 남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치안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08.10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파간의 지역 주도권 다툼이 격화될 경우 치안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 정치 제도

이라크는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을 하고 있으며, 2004.7~2005.4월 임시정부, 2005. 5월 과도정부를 거쳐 2006년 5월 정식정부가 국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국회에 의해 구성되었다.

2006년 1월 발표한 정당별 의석 분포는 다음과 같다.

- United Iraq Alliance(Shiite, Ibrahim al-Jaafari): 128 석
- Kurdish Coalition(President Jalal Talabani, Kurdish leader Massoud Barzani): 53석
- Iraqi Accord Front(Sunni Arab): 44 석
- National Dialogue Front (Sunni Arab): 11석
- Iraqi National List(secular, Ayad Allawi전 총리): 25석
- Kurdistan Islamic Union: 5석
- Reconciliation and Liberation Bloc(Sunni Arab): 3석
- Risaliyoun(Shiites): 2석
- Turkomen Front(ethnic Turks): 1석
- Iraqi Nation List(Sunni): 1석
- Yazidi minority religious sect: 1석 Al-Rafidian List(Christian): 1 석

나. 주요 정파(Political Forces)

1) 시아 무슬림(The Shia Arab Islamists)

○ 이라크 총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최대 종파이면서도 이라크 역사상 한번도 정권을 잡아보지 못했으나 미. 이라크 전쟁의 최대 수혜 세력이다. 그간 시아파는 정교일치를 주장하는 파와 세속파로 분열되어 수니파가 정권을 장악하는데 일조했으나 이라크 전후 사상 처음으로 수니파를 물리고 집권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 Grand Ayatollah Ali Sistani: 이라크 시아 무슬림 중 생존하는 5명의 大 아야톨라 중 가장 권위 있고 시아파 대중으로부터 추앙을 받는 인물로 아야툴라 Abu al-Qasim al-Khoei의 후계자이다. 사담 정권하에서 오랜 기간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고 정치세계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살아남았으나 이 때문에 일부 젊은 과격세력으로부터 너무 온건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물이다. 이란 태생으로 주로 시아파 聖地인 나자프(Najaf)에 머물고 있다. 금번 이라크 전쟁 중 이라크 국민으로 하여금 미·영 연합군에 맞서지 않도록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젊고 과격한 시아 무슬림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을 받고 있으나 시아파 내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있다. 2005.1월 말 치러진 선거에서 시아파 제 정당의 연합공천을 주도함으로써 최초의 시아파 정권 수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 Dawaa Party: '이슬람 부름의 黨(the Party of the Islamic Call)'이라는 뜻을 가진 다와黨은 1950년대 시아파 종교 지도자인 아야툴라 Muhammad Baqir al-Sadr(1935-1980)에 의해 시아파 종교 지도자와 국민간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 바트당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출범한 이라크 最古의 시아 이슬람 정당이다. 그러나 1980년 알 사드르를 비롯한 다와黨 지도부가 사담 후세인 정권에 의해 대거 처형 당하면서 급격 히 위축되었으나 2003.3월 이라크 전쟁 이후 다시 부상하였다. 주요 인물은 전총리인 Ibrahim al-Jaafari, 시니어 고문 Ezzedine Salim, Sheikh Mohammed Nasseri 등이다. 특히 Ibrahim al-Jaafari는 대변인, IGC 멤버, 04.6.2일 임시정부 내각의 부통령 등을 역임하였다. 과도 통치위 순회 의장직을 맡고 있던 Ezzidine Salim은 2004.5월 차량 폭탄 사고로 사망하였고 Sheikh Mohammed Nasseri는 다와黨 재건의 임무를 띠고 이란 망명을 청산, 남부 이라크로 복귀한 인물이다. 2005.5월 출범한 과도정부에서 특히 Ibrahim al-Jaafari가 총리로 선출되었다.
- The Supreme Islamic Iraqi Council(SIIC, 종전 SCIRI); 1982년 11월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라크의 이슬람주의 운동을 하나로 결합하기 위해 이란 혁명정부 지원하에 테헤란서 창설되었다. 바트당에 의해 이란으로 쫓겨난 다와당 및 무나자맛(Munazzamat) 출신들이 주로 참가하였다. Ayatollah Muhammad Baqr al-Hakim 주도하에 집단 지도체제를 표방하는 정당으로 주요 근거지는 이라크 남쪽 시아파 밀집 거주 지역이며 1983년 이란-쿠르드 자치지역 국경에 자체 민병조직인 Badr여단을 결성하였다. 동 위원회 창시자인 al-Hakim은 종전 직후인 2003.5월 망명지 이란에서 귀국하였으나 같은 해 8월 시아파 성지 나자프에서 차량 폭탄사고로 사망하였다(*Sadr 그룹 리더인 Muqtada Sadr가 살해 혐의를 받고 있음). SIIC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였으나 전후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온건 시아파 계열로서 시아 무슬림의 반 서방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버팀목이다. al-Hakim이 사망한 후 동생인 Abdel Aziz al-Hakim이 의장직을 승계하여 당을 이끌고 있다.
- Sadr II Movement; 보수 시아파 리더십, 망명인사에 반대하는 과격 시아파 그룹이다. 시아 성직자인 Jamaat al-Sadr al-Thani가 성지 나자프에서 창설하였으며, Jamaat al-Sadr al-Thani가 바스당 정권에 의해 피살된 이후 올해 만 31세인 그의 아들 Muqtada

Sadr가 부친의 후광에 힘입어 그룹을 이끌고 있다. 사드르 그룹은 이라크 전쟁 직후 친 서방 시아파 성직자를 살해한 혐의와 Sistani 大아야톨라 집을 포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3. 6월 15,000명으로 구성된'메흐디'민병대를 창설하였다. 부친의 이름을 따서 전쟁 후 사담 시티가 사드르 시티로 개명되기도 하였다. 정치적으로는 미군의 이라크 주둔과 이란의 영향력 확대에 반대하고 있으며, 4~8월 초까지 미국 주도 연합군과 메흐디 민병대 간에 나자프 등지에서 치열한 교전을 벌였으나 연합군의 공세 앞에 사실상 저항을 포기하였다. 2005.1월말 선거에는 참가하지 않았으나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바그다드 빈민가 사드르 시티를 사실상 대표하는 인물로 정치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 Iraqi National Congress(INC); 런던에서 수학한 전직 은행가 출신의 Ahmed Chalabi 가 창설하였는데, 1958년 망명한 Chalabi 의장은 1995년 무장 쿠데타를 기도했으나 미국의 지지 철회 등으로 실패하였다. 미 국방부, CIA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금번 이라크 전쟁을 유도한 인물 중의 하나로 이라크 전후 미국과의 밀월관계를 지속 하 다가 2004. 4월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여, 이란에 비밀 정보를 넘겨준다는 혐의로 미군 의 지원 하에 2004.5월 이라크 경찰이 가택 수색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부패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라크 국민들의 지지가 미미한 편이나 2005. 1월 말 총선에 통합 이라크 연맹으로 참가하여 과도정부의 부총리를 역임하였다.
- Iraqi National Accord(INA); 전직 바스당 혁명수비대(RG) 및 시큐리티 망명자 출신으로 구성되었으며 1990년 Turki bin Faysal의 주도하에 미 CIA, 일부 요르단 및 영국계 정보기관의 도움으로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창설된 정치 결사체이다. 동 그룹은 INC에 이어 1996년 사담 후세인 정권 전복을 위한 쿠데타를 기도하였으나 이라크 정보기관에 사전 탐지되어 실패하였다. 미국, 사우디, 쿠웨이트, 영국 등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며 사우디의 도움으로 '자유 이라크 소리'라는 라디오 방송국도 운영하고 있다. 리더인 Iyad Allawi는 2004. 6. 1일 임시정부 초대 총리로 선출되었고 '05년 말 선거에서 25석에 그쳐 제 5당의 위치로 전락하였다.

2) 쿠르드인(The Kurds)

○ 고대 인도. 유럽어족으로서 구약 성서에서 메데족(the Medes)으로 불리는 高山 지역 거주 민족이며, 수니파 75%, 시아파 15%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역사상 2차 대전 직후 이란에서 소련의 지원하에 독립국을 결성하였으나 1년 만에 이란에 복속된 민족으로 터키, 이란, 시리아 등지에 흩어져 있다.

○ 한편, 1920년대부터 이라크 중앙정부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쿠르드국가 창설을 열망해 왔지만 주변 강대국이 원하지 않은데다 대표적인 두 정당 쿠르드 민주당 (Kurdish Democratic Party; KDP)과 쿠르드 애국동맹(Patriotic Union of Kurdistan; PUK)의 라이벌 의식으로 말미암아 번번히 좌절되었다. 분열의 절정기는 KDP가 PUK를 몰아내기 위해 사담 후세인 정권과 손을 잡은 1996.8월이다. 그 후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양대 정당은 외견상 화해의 길로 들어섰다.

○ 1991년 제1차 걸프전 후 북위36도선 이상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면서 3개 쿠르드 자치주(도훅, 아르빌, 술래이마니아)는 사실상 이라크 내 독립국가나 마찬가지 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주변국가의 반대로 독립국가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연방제를 선호하고 있다.

- Kurdish Democratic Party(KDP); 쿠르드 자치지역 양대 정당중의 하나로 제2차 세계대전 후 불어 닥친 민족주의 열풍을 타고 농민 및 부족을 지지기반으로 1946년 Mullah

Mustapha Barzani가 창당하였다. 1979년 부친인 Mullah Mustapha 사망 이후 Massoud Barzani가 리더를 맡고 있다. 비교적 쿠르드 전 지역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나 주요 정치적 기반은 이라크 북서부지역인 아르빌(Erbil), 도훅(Dohuk)이다. 1992.6월에 실시된 쿠르드 자치지역 선거에서 45%의 지지를 획득하였으며, INC 창설에 산파역을 담당하였다. 1998년 PUK와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 공동 관리 협상을 타결하고, 터키 정부 지원하에 PKK를 몰아내기 위해 투쟁한 경력이 있다. 이라크의 연방국가화를 지지하며, Peshmerga라고 불리는 약 4만 명의 용병을 보유하고 있고, 이라크 전쟁 시 미군과 공동 작전을 수행하는 등 전후 미국 주도 연합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PUK 당수인 Jalal Talabani가 과도정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쿠르드 자치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 Barzani이다.

- Patriotic Union of Kurdistan (PUK): Mullah Mustapha의 이란 망명 기간 중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도시 인텔리겐챠의 지지 하에 전직 KDP 중앙위원이던 Jalal Talabani에 의해 1975.3월 창당되었다. 술레이마니(Suleymani)를 비롯한 아르빌, 키르쿠크 등 이라 크 북동부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마오쩌둥을 추종하던 Komala 및 쿠르드 사회주의 운동을 흡수하였다. Iraqi Kurdish Front (IKF) 및 INC 창설 멤버로 1992년 선거에서 44% 지지를 획득하였다. 이란 지원 하에 사담 후세인 정권에 저항하였으며, PKK와는 앙숙 지간이다. KDP 와 달리 쿠르드 독립국가 창설을 지향하고 있다. 약 15만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후 미국 및 서방과 밀월관계를 구가하고 있다. Jalal Talabani 당수는 2005.1월말 총선에 KDP와 공조, 쿠르드 연합 공천을 실시하여 수니파를 제치고 제2당으로 부상하였으며, 2005. 5월 출범한 과도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 Kurdistan Islamic Union(KIU); 무슬림 형제당의 일파로서 1994년 창당하였으며, 이라크 쿠르드 지역 내 최대의 이슬람 조직으로서 정치적 색채가 옅은 편이다. KDP, PUK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동 조직의 리더가 1992년 쿠르드 지역 총선에 나섰으나 KDP, PUK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현재는 Sheikh Salah al-din Muhammad Baha al-Din 사무총장이 이끌고 있으며 사우디 이슬람 정당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동 정당은 주로 모스크, 병원, 학교 건설 등 사회봉사 분야에 주력 하고 있으며, 전후 미국과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임시정부에도 참여하였다.
- Islamic Movement of Iraqi Kurdistan(IMIK); Sheikh Ali Abdel Aziz가 이끄는 이슬람 운동의 한 분파로 1986년에 창당하였으며 이라크 북부 Halabja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92년 쿠르드 자치지역 선거에서는 참패했으나 그 후 사회 및 복지 분야 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니파 계열로서 시아 정권의 출범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으나, INC와는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 수니 무슬림(Sunni Arabs)

○ 소수파(전 인구의 20~25%)이면서도 이라크의 전통적인 집권세력으로 소위 수니 삼각주 라고 불리는 바그다드를 始發로 북쪽 150킬로에 위치한 바이지, 북서쪽으로 150킬로에 위치한 라와를 연결하는 지역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의 몰락과 함께 하루 아침에 집권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락하여 미군에 대한 저항이 가장 거센 지역이다.

- Adnan al-Pachachi: 수니파 출신 중 미 국무성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유력 정치인으로 사담 집권 이전 카심 정부(1958-63)하에서 외무장관을 지낸 적이 있으며 사담 후세인의 박해를 피해 걸프 지역, 주로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오랫동안 망명 생활을 했었던, 非 바트 당 계 수니 무슬림의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미국의 기대와 달리 이라크 전쟁 시 미국과 일정 거리를 유지했으나 전후에는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브라히미 UN 특사로부터 임시정부 대통령직을 제의 받았으나 고사하였으며, 그 결과 정치적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 Iraq United National Movement; 수니파인 Sheikh Ahmed al-kubaysi이 당수이다. 쿠바이시는 팔루자 출신으로서 이라크 점령군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반대 입장이나 실용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 Iraqi Islamic Party(IIP); 수니파 이슬람 정당으로서 무슬림 형제단의 일파이다. 1950년대 후반 창당 된 이후 곧 지지기반을 상실해 갔으나 1991년 걸프전 이후 조직 재건에 착수하였다. 당 사무총장 Mohsen Abdel Hamid 은 2003년 2차 걸프전을 반대 했으나 반 사담 그룹들과 상당한 수준의 공조를 실시하였다. IGC 멤버를 역임하였으며, 중동 전역에 두루 기반을 갖춘 온건 수니 이슬람 당이다.
- National Democratic Party(NDP); 수니파 세속 정당으로 Nasser al-Chaderchi가 당수이다. 그는 IGC 위원이며 1950년대 NDP 당수를 역임하면서 영국이 추진하던 왕정에 반대했던 Kamel al-Chaderchi의 아들로 바스당 치하에서 망명하지 않고 이라크에 머물렀으며 변호사이자 사업가로 활동해 왔다.

4) 기타(투르코만, 앗시리안, 마쉬 아랍)

○ 투르코만(turkoman): 키르쿠크시 주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터키계로 인종, 언어, 문화적으로 터키와 동일시하며 키르쿠크시의 쿠르드 관할 편입을 강력 반대한다.

○ 앗시리안(assyrian):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했었던 고대 앗시리아 및 바빌로니아 후손으로 고대 동방정교, 시리아 정교, 칼데안교회, 신교파로 나눠져 있으며 사담 정권 당시 강제 이주 대상이기도 했다. 이라크 북부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한다. 과도통치 위원인 Younadem Kana가 이끄는 Assyrian Democratic Move ment가 대표적인 정치단체이다.

○ 마쉬 아랍(marsh arab): 티그리스 및 유프라테스강이 만나는 하류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시아 무슬림으로 약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최대 25만 명이 거주했었으나 제1차 걸프전 후 사담 후세인의 갈대지역 없애기 정책에 따라 다수가 고향을 등지고 뿔뿔이 흩어진 상태이다.

다. 주요 인사

이라크 정부는 대통령 위원회 3명(대통령 및 부통령 2명), 총리, 부총리 2명 및 34명의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대통령 위원회(Presidential Council) (3명)
- Jalal Talabani /대통령(President) (쿠르드)
- Dr. Adel Abdul Mahdi /부통령(vice president) (시아)
- Tareq al Hashimi /부통령(vice president) (수니)

○ 총리 및 부총리(3명)
- Dr. Nouri al-Maliki / 총리(Prime Minister) (시아)
- Dr. Barham Saleh /부총리(Deputy Prime Minister) (쿠르드)
- Mr. Salam al-Zubai /부총리(Deputy Prime Minister) (수니)

○ 각 부처 장관(34)
- Abdul al-Qadir al-Mifraji /국방부 (수니)
- Jawad al-Bolani /내무부(Interior) (시아)
- Dr. Hussein Al-Shahristani /석유부 (시아)
- Mr. Karim Wahid al-Hasan /전력부 (시아)
- Mr. Bayan Jabr /재무부(Finance) (시아)
- 공석 /농업부(Agricultural) (시아)
- Mrs. Bayan Dizayee /주택건설부(Housing and construction) (쿠르드)
- Dr. Khudair al-Khuzai /교육부(Education) (시아)
- Dr. Abid Dhiyab al-Ujayli /고등교육부(Higher Education) (수니)
- 공석 /보건부(Health) (시아)
- Mr. Hashim Al-Shibli /법무부(Justice) (시아)
- 공석 /교통부(Transport) (시아)
- Dr. Abd Al-Samad Rahman Sultan /이민부(Immigration) (시아)
- Mr. Jasim Muhammad Ja'far /청소년체육부(Youth & Sports) (시아)
- Mr. Jasim Muhammad Jafar /문화부(Culture) (수니)
- Dr. Ra'id Fahmi Jahid /과기부(Science & Technology) (수니)
- Mrs. Narmin Othman /환경부(Environment) (기독교,쿠르드)
- Mr. Hoshayr Mahmud Zubari /외무부(Foreign Affairs) (수니 쿠르드)
- Mr. Ali Baban /기획부(Planning and Development Cooperation) (쿠르드)
- Dr. Abdul al-Falah al-Sudani /무역부(Trade) (시아)
- Mr. Fawzi Al-Hariri /산업 광물부(Industry & Minerals) (기독교, 쿠르드)
- Dr. Latif Rashid /수자원부(Water Resources) (시아)
- Mr. Muhammad Tawfiq Allawi /통신부(Communications) (시아)
- Mr. Riyadh Gharib /공공사업부(Municipality and Public Works) (쿠르드)
- Mr. Mahmud Muhammad Jawad Al-Radi /노동부(Labor & Social Affairs) (시아)
- Mrs. Wijdan Mikha'il Salim /인권담당(Human Rights) (기독교, 앗시리안)
- Dr. Liwa Sumaysim /관광(State for Tourism and Antiquities) (시아)
- Mr. Shirwan Al-Waili /국가안보(State for National Security) (시아)
- Mr. Adil Al-Asadi /사회(State for Civil Society Affairs) (시아)
- Dr. Rafi Al-Isawi /외교(State for Foreign Affairs) (수니)
- Dr. Safa Al-Safi, Minister of State for the Council of Representatives Affairs(시아)
- 공석 /행정자치(State for Provinces) (수니)
- Mrs. Fatin Abd Al-Rahman /여성(State for Women's Affairs) (수니)
- Dr. Akram Al-Hakim /국민화합(State for the National Dialogue Affairs) (시아)
- Mr. Muhammad Abbas Al-Uraybi /정무(Minister of State)
- Mr. Hassan Radi Kazim al-Sari /정무(Minister of State)

라. 외교관계

이라크는 '03년 전쟁 이후 주변 아랍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권 정부 출범 이후에도 친미, 친 이란 외교노선을 지속하고 있다.

GCC 회원국, 쿠웨이트, 요르단, 시리아, 이란 등과 관계가 호전되고는 있으나 일부 순니 아랍국들과는 시아파 정권이며 친미 정권이라는 이유로 정식 외교관계 개설이 지연되고 있어 애매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지속적 원조 하에 이라크전에 반대를 했었던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과의 외교관계도 개선되고 있다.

현 시아파 집권층은 친 이란계로 이슬람 연합당(시아 집권당)의 말리키, 자으파리, 알하킴 등 정치지도자들은 이란과의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리아와는 사담시절 바트당 저항세력들의 거점으로 국경을 통하여 이라크로 유입되는 저항단체에 대한 통제 문제로 다소 갈등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무장세력의 월경에 대한 의구심, 말리키 정권의 능력에 대한 회의,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아파 정권 등으로 이라크와 외교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08.3월 이후 시아파 반군인 마흐디 민병대에 대한 이라크 정부의 진압으로 인해 인근 요르단,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연합, 쿠웨이트 등과 관계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UAE와는 '08.6월 채무 탕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걸프 제국 중 최초로 이라크에 대사관 개설이 논의되고 있다. 쿠웨이트와는 '90년 쿠웨이트 침공으로 인한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양국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나 최근 양국의 무역이 늘어나면서 개선 기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08.8월 들어 양국간의 관계 정상화에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이라크를 탈출하는 기업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 UAE, 요르단, 시리아 등 인접 아랍 국가들이나 이라크 국적자에 대한 체류 비자 획득, 입국 규제 등이 이라크인의 애로사항이다.

마. 주한 주재국 기관

한국에 소재하는 이라크 대사관은 2006.11월에 개설되어 활동 중이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중고차 2004년식 이전 수입금지

이라크 정부는 2005.9.1일부터 2004년식 이전 중고차량 수입을 금지하여 (2005.1.1일부터 2000년도 이전에 생산된 중고차량의 수입을 금지시킴) 연간 약 20만대, 03년 이후 약 90만대의 중고차를 수출한 이라크 시장에 사실상의 중고차 수출길이 막히게 되었다. '04년 이후 중고차량 및 기수출차량의 부품형태로 일부 수출하고 있으나 물량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중고차 수입제한조치는 1년간 한시적인 조치였으나 이라크 정부는 '07년에 이어 '08년에도 재연장하여 유지하고 있어 우리 중고차 수출업체들의 애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나. 이라크 정부부처의 사업 참가자격 제한

일부 이라크 정부 부처에서는 참가가 가능한 국가를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한국기업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편이다. 한편, 석유부의 경우 '08.4월 향후 이라크 유전개발에 참가할 기업들 35개사를 선정하면서 쿠르드 지방정부와 유전 개발 계약을 추진 중인 일부 한국기업을 배제하였다.

다. 대 이라크 수출, 계약 건에 대한 국내 보험 부보

이라크 직수출에 대한 국내 보험 미부보, 공사 계약분에 대한 보험 미부보, 대 이라크 자본재 수출에 대한 보험 미적용 등으로 국내 수출업체들의 수출여건은 불리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라크 영내에서는 운송 보험이 커버되지 않고 있어 현지 도착도 CIF 기준 수출시 국내 수출업체들은 영내 운송에 따른 도난 위험과 경비회사 채용에 따른 추가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 이라크 입국 제한

우리정부는 '04년 김선일 사건 이후 신변안전을 위하여 한국인의 대 이라크 입국을 엄격히 규제하여 원칙적으로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기업의 이라크내 주요 프로젝트 진출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 유럽 국가 등 여타 경쟁국들은 오일분야, 건설 등 다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자국민의 이라크 입국과 관련, 전면 금지가 아닌 여행 위험지역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06년 8월 이후부터 요르단 주재 지상사의 쿠르드지역 단기 방문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으며, '07년 2월 이후부터는 여권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하여 일정기간 내의 복수입국 허용 및 동일 사안 추가입국 허용 등을 진출 허용시 명시하여 기업진출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어 입국 제한을 다소 완화하였다.

'07년 8월 이후 아프가니스탄 납치사건의 여파로 이라크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고 이라크에 대한 한국인의 입국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조치는 '08년 다시 1년 더 연장되어 사안별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부여한 점을 제외하면 종전의 규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 개황

이라크 경제는 경기침체 속에서 유가 상승세의 도움을 받았으나, 저항세력들의 조직적인 전력, 원유 파이프라인, 통신, 기간시설에 대한 파괴 및 테러로 경제 불안이 지속되어 '06년 경제성장은 전년보다 개선된 1.9%를 기록하였다. '07년에는 고유가 속에 원유 생산이 증대되고, 치안이 다소 개선되어 경제성장율이 5.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08년 이후에도 남서부를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회복, 외국투자 유치 증가, 내수 증대 등으로 성장률은 더 높아져 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일 테러 및 저항활동이 100여건에 달하였으나 '07년 2월부터 시작된 미군 증파와 치안 확보작전이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두어 '07년 7월 이후 테러 건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고 있으며 치안이 가장 불안한 바그다드도 점차 치안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08년 들어 각 정파의 민병대 해체와 정부군 편입 방침에 따라 사드르파의 마흐디 민병대에 대한 정부군의 진압 작전이 격화되면서 3월말 이후 남부지역 경제중심지인 바스라를 중심으로 치안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바그다드지역의 치안 불안도 고조되었다. 그러나, 마흐디 민병대와의 교전이 5월 이후 수그러들면서 치안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이라크의 치안 상황은 내외부 요인에 따라 악화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라크는 국가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력기업인에 대한 빈번한 납치 활동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있다. 전력 생산, 원유 생산, 상하수도 공급 능력이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치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저항세력에 대한 억제력이 미흡하여 치안이 불안함에 따라 재건사업의 진척도도 낮아 경제여건의 개선이 더딘 실정이다.

물가는 보조금 축소로 인한 유류와 관련 교통비 증가, 생필품 부족으로 인한 가격 급등, 수입 물가 인상 등으로 06년에는 소비자물가가 53% 폭등하였다. 그러나 이라크 중앙은행의 물가 억제를 위한 이라크 디나르화 절상과 이자율 인상 조치 등 금융긴축정책으로 인해 물가 급등세가 둔화되고 있어 '07년에는 30.7%로 하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물가 인상 둔화추세가 이어져 '08년에 15.2%, '09년에는 12.5%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 생필품의 공급 문제는 상존하고 있으며, 이라크인들은 이들 상품의 구매를 암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인상률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는 정부재정 및 외회 수입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 산업으로 이라크 정부는 '07년 일일 석유생산 목표를 당초 250만 배럴에서 210만 배럴로 하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치안상황 개선에 따라 '07년 연 평균 일일 생산량은 207백만 배럴을 기록해 전년보다 17만 배럴 이상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생산과 수출이 유지되었다. '08. 5월 기준, 석유 생산량은 250만 배럴로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라크 정부의 '08년 연간 생산량 목표인 250만 배럴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로운 석유법은 '07년 5월 제정 시한을 넘기고 7월 법안을 일부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이나 유전 관리권한을 둘러싼 쿠르드 지방정부의 반발, 정파 간 첨예한 이해 대립, 석유자원에 대한 민족주의적 입장 등으로 '08.9월 기준 국회 심의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석유법을 '08년 내에 통과시켜 석유 부문에 대한 외국 투자를 유치하여 석유 증산과 경제 재건을 본격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통과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다 치안 상황도 여전히 불안하여 외국 자본의 투자가 제한되고 기존 원유 설비의 보수도 지연되고 있어 당분간 원유 생산의 큰 폭 증가는 어려울 것이다.

대외 교역은 수출, 수입 모두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06년 유가 인상과 석유 생산 증가로 인해 69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유가 인상세 지속에 따라 '07년에도 수출 신장세가 수입 증가율을 앞서 무역수지 흑자폭은 더 늘어나 140억불 상당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라크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05	2006*	2007*	2008*
GDP(US$ 억)	347	422	559	559
1인당 GDP(US$)	1,394	2,274	2,616	2,616
소비자물가 상승률(%)	31.6	53.2	30.7	15.2
실질 경제성장률(%)	3.7	1.9	5.2	6.1
경상수지(US$ 백만)	-152	5,665	7,600	11,100
수출(US$ 백만)	19,773	28,412	37,400	45,000
수입(US$ 백만)	18,748	21,480	23,735	26,700

주: 2006/7년 수치는 추정치, 2008년은 전망치
자료: EIU

나. 자유 시장경제원리 확산 및 규제 철폐

지난 30년간 사담 후세인 정권에 의한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이 2003년 폐지되고, 경제 관련 법규를 대폭 개편하여 자유 개방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무역부문에서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5% 일괄 적용하고 수입규제도 대부분 폐지하였다.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이전 정권에서 지원해오던 석유, 전기 및 각종 생필품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도 축소하고 시장가격에 근접하도록 가격 인상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라크의 신경제 정책은 USAID의 Economic Recovery and Reform 계획에 의거 Bearing Point사가 주도하여 중앙은행, 재무부, 무역부, 상공부와 더불어 무역, 투자, 민영화 등에 관한 전반적인 조직체계, 법령을 정비해오고 있다. 석유, 천연가스, 금융부문을 제외한 전 산업부문에 대해 외국인의 투자, 부동산 소유 등을 허용하고, 국영 기업 민영화 등 혁신적인 경제정책을 채택, 추진하고 있다.

경제분야의 주요 개선사항은 법적 장치면에서 기업법, 은행법, 증권법, 외국인 투자법, 기금 조성법, 공공조달법, 중앙은행 관리법 등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전환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프레임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재정 부문에서는 단일 관세율 제정 및 관세율 인하, 누진 소득세 도입, 공무원 급여 및 연금 인상, 균형 예산 편성, 국채 발행, 지자체 간 예산 편중 해소 등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 ○ 금융. 통화: 신권 발행. 변동 환율제 정착. 이자율 자유화. 시중은행 자본금 증액. 중앙은행 독립. 재정 적자 해소용 통화발행 금지. 물가 안정
- ○ 석유 부문: 3개 국영 석유공사 통합 작업(진행 중).
- ○ 통신 부문: 위성방송 허용. 휴대전화 서비스 개시. 유선 전화망 정비
- ○ 전력·상수도: 전쟁 발발 이전 용량에 도달(3,500MW ->4,200MW)하지 못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음. 상수도 보급률 점진적 확대 중

다. 무역 자유화

경제 및 무역 자유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불필요한 무역 규제가 폐지되었으며 재건세 명목으로 5%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각종 경제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WTO 가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료회의 직속으로 신설된 WTO 가입 전담위원회 에서 국내 법규를 WTO 원칙에 맞도록 고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 내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라. 외국인 투자법 제정

2006.10.10일 이라크 국회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투자를 규제하는 신 투자법을 통과 시켰 으며, 동년 12월 대통령의 승인과 공표를 거쳐 정식 제정되었다. 신 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내외국인 간 차별 철폐, 외국인 100% 단독투자 허용 등으로 주변국에 비해 앞선 제도를 갖추고 있다. 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기관인 국가 투자위원회(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을 '07.11월 설립하고 주정부별로 투자위원회를 설치하여 투자관련 조직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은 법적인 측면보다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며 ① 인허가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구축 ② 투자보장 협정 체결 강화 등을 들 수 있겠다.

마. 재정 및 통화정책(Fiscal & Monetary policy)

1) 정책 추이(Policy trends)

이라크의 경제정책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일산 250만 배럴의 지속적 생산 수준까지 원유 생산량을 증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에 대한 기초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폭적인 원유 증산은 필연적으로 외국 메이저를 비롯한 국내외 투자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석유법 제정 이전에는 달성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기초생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200여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 등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나 이 또한 정부의 취약한 행정력, 치안 불안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현재는 외국 투자기업이나 민간기업에 합작 투자, 또는 장기 임대방식 등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라크 산업부에서는 '08.4월 두 바이에서 공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2차례 더 공기업 민영화 대상에 대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민영화 노력을 적극화하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장기적으로 민간부문 육성을 통해 재정의 지나친 석유 의존도를 줄여가고자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영기업 민영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나,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매우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재정 정책(Fiscal policy)

정부 재정은 '04년 재정 적자가 GDP의 40%까지 확대되었으나, 이후 석유 수입 증가로 재정 수지가 개선되고 있다. 실제 재정 수지는 '05년부터 재정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였다. '05년에 흑자가 GDP의 10%였으며, '06년에는 14%까지 늘어났다. 이는 일부 정부의 행정력 부족과 치안 불안으로 예산 집행률이 하락한 데도 기인한다.

예산 집행률이 '06년 24%로 극히 저조하였으나, '07년에는 상황이 개선되어 63%까지 늘어났다. 이는 이라크 정부의 사업 집행능력 부족, 치안 불안으로 외국기업의 재건사업 참여 기피, 정부의 부패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예산 편성 기준으로 '06년 41억 달러 수준으로 국민총생산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07년 정부 재정적자는 유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부보조금 지급, 공공부문 지출 증가 등으로 80억 달러(GDP의 14.4%)까지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예산 집행률이 63%에 불과하여 상당 예산이 '08년으로 이월되었다.

'08년도 예산을 당초 498.8억 달러로 책정하였으나, 최근 고유가로 석유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로 210억 달러를 편성하여 예산규모가 708.8억 달러로 크게 증가되었다. 이 중 각종 재건사업을 위한 자본예산이 177억 달러로 늘어나 지방정부 등을 통한 재건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3-4년간 인프라 재건, 공공부문 고용 확대 등 정부 지출 증대로 고유가로 인한 석유 수입 증가에도 불구 재정 수지는 다시 악화되어 '09년 재정적자가 22조 750억 디나르(GDP의 19.6%), '10년 24조 4,700억 디나르(GDP의 21.2%), '11년 27조 6,810디나르(GDP의 23.8%)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라크 연도별 재정수지 현황

(단위: 십억ID)

	2006	2007
수입 및 보조금(Grants)	**59,717**	**51,314**
- 원유 수출	42,106	39,092
- 석유관련 국영기업	3,375	3,179
- 조세	822	858
- 비조세	525	1,079
- 보조금	12,816	6,683
지출	**65,880**	**61,483**
- 일반행정	45,923	43,499
. 월급 및 연금	12,871	15,172
. 재화 및 서비스(비석유)	15,662	12,559
. 재화 및 서비스(석유)	6,090	2,937
. 이전비	8,708	10,325
- 투자	18,968	17,630
재정수지	**-6,163**	**-10,169**

자료: EIU 2007.9 월

이라크는 재정 지출의 중점을 경제 회복, 특히 석유부문의 회복에 두고 이에 필요한 지출을 늘려나가고 있다. 일반적 재정지출은 공공부문 인력 조정작업이 정치적 이유로 지연되면서 석유 보조금의 감소로 인한 절감 효과를 상쇄하여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수입은 95% 이상을 석유 부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편중도가 심한 실정이다. 비석유 부문의 수입(Revenue)을 얼마만큼 늘리는가에 정책 과제가 주어져 있으며, 전후 초기에는 대외 원조 유입 증가에 치중하다가 관세, 세금을 통해 수입원 발굴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수입관세 5%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어서 세수 확보를 위해 판매 세제(sales tax)와 같은 보완수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라크는 재산세 등과 같은 직접세 관련법이 없다.

중, 단기적으로는 석유수입이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할 것이며, 전쟁 직후에는 석유 수출 회복세가 매우 느려 동결자산 해지라던가 미국을 비롯한 대외 원조자금이 주요 재정 수입원이 될 수 밖에 없었으나 '06년 들어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고 원유 수출물량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석유수입이 국가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바. 통화정책(Monetary policy)

이라크 금융부문은 前 정권하에서 대다수 국민의 외면을 받았고 극히 소수에게만 대출 특혜를 제공하여 왔었기 때문에 전면적인 변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자본금 확충과 은행 재건작업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 이후 연합국 임시행정처(CPA)는 사기업 친화적 금융부문 건설을 위하여 중앙은행법을 제정하여 통화정책을 담당할 독립적인 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aq; CBI)을 설립하였다. '03.9월 은행법을 제정하여 민간은행의 최소 법정자본금을 100억 디나르로 규정하고 '03. 10.28일 중앙은행은 이라크 17개 민간 시중은행 민간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 결제, 송금, 외환 신용장 개설업무를 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04.1월 금융시장을 개방하여 외국은행인 영국계 HSBC, Standard Chartered Bank, National Bank of Kuwait(NBK) 등이 지점 개설 면허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이들 은행들은 치안상 이유로 영업 개시를 미루고 이중 HSBC와 NBK가 이라크 은행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간접 진출을 하고 있다. 이후 레바논의 Byblos Bank가 '07년 아르빌 지점을 개설하였으며, 인근 중동국의 Arab Bank(바레인), Turkish Agricultural Bank(터키), Bank Milli Iran(이란) 등이 바그다드에 지점을 개설, 영업하고 있다.

'03.10월 새로운 디나르 화폐를 발행하여 대미 환율을 미$1=2,050ID로 정했으며, 이후 이라크 디나르화는 지속 절상되고 있다.

중앙은행은 은행간 자금시장, 기본 대출이율, 최소 지급준비금 보유제, 일일 외환거래시장, 정부 증권시장 등의 도입을 통해 이라크 경제의 유동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자유 변동 환율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이라크 디나르화의 강세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물가 인상이 다소 억제되곤 있으나, 이라크의 인플레이션이 공급측면의 것으로 기본 생필품의 공급 부족으로 물가 통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라크 금융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이라크 국영은행: 대형 은행 2개(라피다인은행, 라시드은행), 특수은행 4개
- ○ 민간은행: 17개. 최소 자본금 100억 디나르. 외국인 49%까지 지분 허용
- ○ 외국은행 지점: 최소 자본금 500억 디나르, 100% 외국인 출자 가능

사. 분야별 현안

1) 정부 보조금 축소

보조금 지급은 정부 재정을 고갈시킬 뿐 아니라 시장 경제를 왜곡시키고 각 경제주체의 효율성을 심각히 저해하므로 사회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부 보조금에 의한 가격구조 왜곡을 축소하고 현금 보조금 지급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06.1월 단행된 유류가 300% 인상 조치였다.

밀가루, 설탕, 홍차, 식용유, 우유, 소금 등 기초 식품을 매우 싼 값에 배급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한해 46억 달러가 소요되며 이라크 국민의 약 60%가 이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이다. 높은 실업률, 치안 불안 심화라는 대내적 여건으로 인해 폐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배급이 필요 없는 중산층 이상 고소득계층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향후 2년간 약 25%의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 석유제품(Oil Products)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석유제품은 오랫동안 아주 낮은 가격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를 지탱하기 위해 정부는 정유공장에 현 국제시세인 배럴당 40불의 0.5%에 불과한 21센트를 받고 원유를 공급하고 있다. 정유공장에 공급되는 연간 약 55만 배럴을 2005년 회계연도 기준 유가로 계산하면 약 52억불을 보조금으로 투입한 셈이다. 그 결과 휘발유를 리터당 50디나르(1.36센트, 05년 기준)에 판매할 수 있었다. 석유부문 총 보조금은 연간 71억 달러~76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IMF와 에너지 보조금 폐지를 약속하고 지속적으로 유류 보조금을 축소해왔다. 그 결과 '06년 8월 기준 유류제품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약 300% 인상하여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07년 7월에는 등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류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폐지하였으며, 이에 휘발유 가격도 15% 추가 인상되었다.

□ 전기/수도(Electricity and Water)

석유제품과 마찬가지로 전기, 수도 요금도 정부에 의해서 싼 값에 고정되어 있다. 국가 전력 소비의 약 47%를 차지하는 가정용 전기료가 주요 대상으로 연간 전력부문 보조금은 약 40억 달러에 달하였다. 수도료 또한 보조금 대상이다. 1인당 국민소득 향상에 보조를 맞춰 공공요금의 점진적인 인상을 검토 중에 있다.

2) 이라크 화폐가치 강세 지속 추구

달러화 안정적 보유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디나르는 06년 3분기까지 안정적인 1불당 1475 디나르를 유지하였으나, '06년 11월 이후 외환시장의 불안 속에 디나르의 대미 환율이 인하 추세를 보이면서 12월 말에는 1달러당 1300 디나르를, '07년 5월 평균환율은 1262 디나르를, '07년 12월에는 1,217디나르를 기록하여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라크 중앙은행이 국내 소비자물가의 급격한 인상에 대처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여나가고, 이라크 경제의 달러화(Dollarization) 경향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율 절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결과이다. 중기적으로는 중앙은행은 사실상의 달러화 고정정책 지속으로 공식 평균환율은 '07년에는 1216디나르를 기록할 것이며, '08년과 '09년에도 평가절상세가 지속되어 1200디나르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파리클럽 등 대 이라크 채권 80% 탕감 순조

19개 파리클럽 회원국은 이라크 채권 420억 달러 중 80%에 해당하는 336억 달러를 3년에 걸쳐 탕감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대 이라크 최대의 채권국가(284억불)인 쿠웨이트 정부와 일본 정부도 파리클럽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80% 탕감안을 확정시켰다. 약 950억 달러로 추산되는 외채 중 약 67%는 GCC국가 채권이며 이 중 쿠웨이트 채권이 284억 달러, 사우디가 250억 달러에 달한다. 19개 파리클럽 회원국의 대 이라크 채권은 약 420억 달러에 달하지만, 이라크 정부가 예산에 반영한 외채 이자 상환액은 2005년 2억 달러, 2006년 2억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제1차 걸프전 직후 UN안보리 결의안 1483호에 의해 쿠웨이트에 지불하도록 결정된 배상금(이라크 원유 및 가스 수출 금액의 5%. 종전에는 25%)과 총 외채의 12%로 추정되는 민간 상업차관에 대해서는 탕감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대 이라크 채권은 현대 건설 등 민간 무역 및 건설부문 채권이나 현대건설은 '05년 말 80% 탕감에 기 합의하고 잔액은 장기 상환받기로 합의하였다. '08년 6월 GCC국가 중 UAE가 최초로 이라크의 채권을 탕감하였으며, 쿠웨이트와도 채권 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4) 소득세(판매세) 부과

CPA 명령 37호(03.9.19)에 의거 '03.4.16일부터 2003년 말까지 모든 소득세, 부동산 임대세 부과를 면제하였다. 단, 특급호텔 및 식당 부가세, 부동산 거래세, 차량 판매세, 유류세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5성급 호텔 및 레스토랑, 부동산 거래세율은 10%이며,

2003.9.19일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담배, 알콜 등 기타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세(Excise) 15%를 부과하고 있다.

면제기간이 종료된 2004.1월부터는 개인 및 법인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고 한도는 15%이다. 1982년에 공표된 과세 부과 관련 절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정부 세입으로 추정하고 있는 개인 소득세 총액은 2004년 1,000만 달러, 2005년 3,000만 달러이며, 법인 소득세 총액은 2004년 2,000만 달러, 2005년 5,000만 달러이다.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2005년 조세 수입은 2,503억 디나르(미 170.8백만 불)이며, 2006년은 3,880억 디나르(미 258.7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55% 이상 세수가 늘어났다.

5) 원유 收入(0il export proceeds) 및 정제능력 확충 절실

연간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액은 '06년 320억불로 해외 원조를 뺀 총 재정수입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라크의 원유 정제능력은 일일 약 70만 배럴로서 북부 Baiji, 중부 Dora, 남부 Basra에 3개 국영 정유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전쟁 이전 이라크의 정유공장들은 77% 가동율을 유지하였으나, 전쟁으로 인한 설비 파괴와 노후화, 원유와 전력 공급의 차질 등으로 '05년에는 가동율이 1/3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 결과 국내 석유제품 수요를 충족치 못하여 상당 물량을 인근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07.8월 현재 전체 휘발유의 5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축물량도 등유 3일분, 디젤유 2일분, 액화가스와 휘발유 1일분으로 정부의 목표치를 훨씬 밑돌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석유제품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10억 달러를 들여 기존 정유공장 3개소를 개보수 및 확충하고, 27.5억 달러를 투입하여 일산 30만 배럴의 Nassiriyah 정유공장, 7만 배럴의 Koi 정유공장(쿠르드 지역) 등을 신규로 건설하기 위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6) 기금 및 외환관리

UN, 이라크 개발기금 조성: 외화수입의 90% 이상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의 경제재건은 석유자원의 개발 속도에 비례한다. 1,125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이는 전세계 확인 매장량의 약 10.7%나 되는 물량으로 2,618억 배럴의 매장량을 가진 사우디, 이란에 이어 세계 제 3위의 산유국이다. 따라서 이라크가 얼마나 빨리 원유를 증산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이라크 재건속도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UN은 안보리 결의안 1483호에 의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정통성 있는 이라크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미국과 영국에 대해 이라크 원유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였다. 이라크 원유 판매수익은 이라크 중앙은행이 관리하고 독립적인 제3의 회계감독을 받는 이라크 개발 기금에 귀속되고 있다.

2. 주요 산업 동향

이라크는 '07년 현재 2,89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중동의 대국으로 제조업 육성정책의 결과 제조업이 전체 산업 중 5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부문은 26.7%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은 11.9%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 농 업(Agriculture)

농업은 생산액이 약 19억불이며 고용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이라크 비석유 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이다. 한때는 농업의 자급자족이 가능했었으나 지난 20년 동안 농업부문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잃어 왔다. 주요 농작물은 밀, 보리, 쌀, 면화, 대추야자 등이며 특히 대추야자는 이라크가 세계 제1의 수출 국가였다. 이중 절반 정도는 강우량이 충분한 북부 평야지대 및 산간계곡에 있으며 나머지는 유프라테스 강 및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다.

농업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국영기업 형태인데 경영부실과 종자개량, 수리시설 개량 실패 등으로 지난 15년간 생산량이 연평균 1.1%씩 감소해 왔으며 부실한 관개수로 및 과잉 방목, 사막화 등으로 환경문제를 일으켜 왔다. 특히 1990년 이후 농업부문 생산량은 연평균 2.6%씩 감소하였다. 한편,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UN의 Oil-For-Food Program도 농업 생산자의 생산 의욕을 크게 감퇴시켰으며 '03년 이라크의 곡물 총생산량은 350만 톤으로 전년 의 410만톤 에 비해 60만 톤 정도 감소하였으며, 이런 감소세가 '04년에도 이어졌으나, '05년 에는 회복세를 보여 340만 톤을 생산하였다. 전쟁 이후 이라크의 식량 자급률은 43%에 불과한 실정이며, 나머지 부족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연간 식량 수입규모가 30억불에 달하고 있다. 현재 이라크는 따라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식량 배급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는 농사에 적합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종자 개량, 비료 투입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농작물 산출량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이라크 국토면적 중 약 27%인 800만 헥타르가 경작가능 면적이며, 미 농무성 추산에 의하면 이들 경작가능 면적 중 절반 정도인 400만~500만 헥타르만 농지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농지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농기계 부족, 관개수로 미비 및 낮은 수매가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UN의 Oil-For-Food program의 현금화 전환, 농산물 매매시장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현재 무역부 산하 Public Distribution System 이 식량을 배급하고 있으며, 양곡 판매상도 활동 중이며 농민들도 재배대상 품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나. 주택건설(Housing and Construction)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현상과 기존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이라크의 주택건설 경기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다. 정부는 500만 호를 10년에 걸쳐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04년 3월에 Iraqi Renewal프로젝트에 따라 1억불 상당의 7건의 주택건설 계약이 체결 시행 되고 있으나 치안 불안과 자금 부족으로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약 140만호의 주택이 부족한 상태이며, 교도소 및 학교 시설 부족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여타 아랍국들처럼 부동산 소유관계가 불명확하여 주택 구입을 위한 담보 대출 등의 파이낸싱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것도 주택 보급률이 낮은 큰 이유이다.

이처럼 정부의 공공 주택 예산이 빈약한 반면, 전후 바그다드 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라 민간 주택 건설 경기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다. 다만, 이라크 치안이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외국인 입주자가 적어 치안이 개선될 때까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쿠르드 지역에서는 상대적인 치안 확보로 인해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어 건설 붐이 일고 있다.

이라크 정부에서는 '08년을 "재건의 해"로 정하고 지방 정부의 주도하에 지역 재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25억 달러를 배정하였다. 바그다드 주정부는 5억 7,000만 달러를 배정받아 바그다드를 중동지역에서 주요 경제적·상업적 중심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55개의 거대 인프라 및 건설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한편, 남부지역 경제 중심지인 바스라주는 1억 97백만 달러를 지원받아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합류하는 습지지역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외에 다른 주정부에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건 프로젝트를 계획, 추진할 예정이어서 치안 상황만 개선된다면 외국기업의 진출에 한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다. 제조업(Manufacturing)

1) 현 황

이라크의 제조업 발전단계를 살펴보면, 1970년대 중반까지는 수입대체 산업 육성시기였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는 중공업화, 비석유화 정책 시기였다.

그러나 이라크의 제조업은 석유연관 산업을 의미할 정도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주요 제조업도 석유 탐사. 채굴을 비롯하여 정제, 천연가스, 유화산업 등이 대표적이다. 석유 산업은 주로 바스라 및 키르쿠크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밖에는 시멘트 산업이 대표적인 비석유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1970년대 후반 중공업화 정책에 따라 알미늄 제련, 선박수리 프로젝트를 시도했었으나 실패했으며, 프랑스 기업의 도움으로 코르알 주바이르 지역에 제철소를 건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 말 이란-이라크 전쟁 발발로 정부의 수입대체 및 중공업화 정책이 중단되다시피 했으며, 이후 부족한 투자 재원을 민간투자 활성화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취해졌다. 그 결과 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 종료 후 한때 경공업의 민영화가 추진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민영화에 따른 생필품 가격 폭등과 이에 따른 국민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의 가격 통제가 강화되기 시작했고 그 후 UN의 경제제재가 발동되면서 민간 제조업 열기가 급속도로 식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도훅, 아르빌, 술레이마니아 등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은 UN이 Oil for food program 추진을 위해 이 지역에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을 지원하고 No-fly Zone으로 선포함에 따라 타 지역에 비해 민간 제조업이 비교적 활발한 편이었다.

□ 석유

석유산업은 이라크의 핵심 산업으로 GDP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수출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라크의 확인 매장량은 1,150억 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에 이어 세계 3위의 석유 매장 국가이다.

이라크는 확인된 80개 유전 중 24개 유전(총 매장량 866억 배럴 규모)을 개발하고 있으며, 석유법이 통과되면 외국 투자 유치를 통해 신규 유전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생산 유전은 남부의 Rumaila 유전, Bai Hassan 유전, Zubair 유전, 북부의 Kirkuk 유전 등이며, 남부는 바스라항을 통해 수출되고 있으며, 북부는 송유관을 통해 터키의 케이한(Ceyhan)항에서 수출되고 있다. 이라크 정부의 신규 유전 개발 대상은 남부의 Majnoon 유전, West Qurna 유전, Nahr Bin Omar 유전 등이다. 신규 유전 개발을 통해 이라크 정부는 생산 목표를 일산 600만 배럴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라크 유전의 채굴비용이 배럴당 0.6달러로 여타 중동지역의 평균 비용 1.5달러에 비해 생산 단가가 절반 이하 수준이어서 경제성이 뛰어나다.

이라크의 석유 생산량은 전쟁 이전인 2000년에 일산 257만 배럴을 생산하였으나, '03년에는 전쟁으로 인해 133만 배럴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이후 노후화된 유전 설비 개보수를 통해 '06년 190만 배럴, '07년에는 208만 배럴까지 증산되었으나 유전 복구의 진척도가 낮아 여전히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석유 산업은 생산설비의 노후화, 석유설비에 대한 테러, 사보타지 등으로 생산이 순조롭지 못하였으나, 8월 이후 치안이 다소 안정되면서 일산 200만~240만 배럴을 생산하면서 4분기 평균 생산량이 일산 230만 배럴을 기록하였지만 여전히 전쟁 이전 수준인 일산 250만 배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08년 2월 기준, 237만 배럴 생산으로 '08년에는 연평균 생산량 250만 배럴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도별 이라크 석유 생산 및 수출 실적

(단위: 일산 천 배럴)

구분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생산	2,568	1,329	1,995	1,816	1,902	2,075
수출	2,243	818	1,545	1,410	1,500	-

자료: EIU

석유 수출규모는 '03년 일일 82만 배럴로 2000년 이후 최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후 송유관과 수출 터미널의 시설 개보수를 통해 '06년에는 150만 배럴까지 늘어나 국가 재정에 기여도를 높이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석유법 제정을 통해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생산 설비의 증설과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석유법의 제정 지연, 치안 불안으로 외국 석유기업의 투자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치안이 안정된 북부 쿠르드지역에는 쿠르드 지방정부가 자체 석유법을 제 정하여 지역의 유전 개발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현재 노르웨이의 DNO사가 유전 개발에 참여하여 석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의 Hunt사, 오스트리아의 OMV사 등 외국기업들도 쿠르드 지방정부와 유전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쿠르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외국기업에 40개의 유전 광구를 분양하였다.

이라크 송유관은 4개 라인으로 북부 키르쿠크-남부 유전-바스라항 라인, 키르쿠크-터키 케이한항 라인, 키르쿠크-시리아 바니아스 라인, 이라크-사우디아라비아 라인이다. 이중 전쟁 이후 북부 키르쿠크-바스라항 라인, 키르쿠크-터키 케이한항 라인 2개 라인만 가동되고 있다.

□ 석유 정제

석유 정제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이라크는 1990년대에는 일일 정제능력이 60.3만 배럴을 기록하였으며, 정제 공장은 Baiji, Dora(Baghdad 인근), Basra 등 3 곳에 집중되어 있다.

'03년 전쟁 이전에는 정제능력의 77%를 가동하였으나, 전쟁 이후 설비 노후화에다 전력난과 원유 공급의 불안정으로 설비 가동률이 대폭 줄어들었다. '05년의 경우 정제능력의 1/3 수준만 가동되어 휘발유, 디젤유 등 유류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를 충족치 못해 상당량의 유류 제품을 인근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07년 8월 현재 전체 휘발유 중 58%는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정제능력 확충을 위하여 대규모 정제설비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Nassiriyah지역에 일산 30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입찰을 통해 건설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산 7만 배럴의 쿠르드지역 Koi 공장, 14만 배럴의 중부지역 Nahrain 공장 등의 신설을 검토 중에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정제 설비인 Sohar Refinery Company(SRC), North Refining Company (NRC), Midland Refining Company(MRC) 등의 정제 설비를 3단계에 걸쳐 개보수하는 프로젝트를 2009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 가스

이라크의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은 3,170십억 큐빅미터에 달하며, 최근에 4,245십억 큐빅미터의 추가 매장량이 발견되어 이라크는 천연가스 시장에서 주요 공급국으로 대두되었다.

'03년에 15억 6,000만 큐빅미터를 생산하여 1979년의 198억 큐빅미터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설비 보수와 치안 불안이 해소되면 생산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향후 투자계획

투자를 자율화하고 기업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신 투자법이 '06년 12월 의회를 통과하여, 시행되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 기본 틀을 갖추었다. 특히 각종 규제해제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민간 제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포고령을 발표하고, 소기업 대출제도, 창업투자자금 대출 제도와 같은 미시적인 파이낸싱 제도도 발표하였다.

이라크 산업광물부는 200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중이며, 이 일환으로 '07년 1월에 60개의 국영기업을 외국투자 유치를 통해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08.4월에는 두바이에서 산업광물부 주최로 "'Investing in Iraq's Industrial Sectors-Public & Mixed'를 개최하여 석유화학, 식품 및 제약, 건설, 엔지니어링, 섬유 등 6개 분야의 45개 국영기업에 대한 합작투자를 유치하려고 추진하여 이중 3개 국영기업의 합작 투자를 성사시켰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개관

이라크는 '03년 전쟁 이전에는 인근 아랍국 중심의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전쟁 이후에는 자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서방 국가와의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WTO 가입을 위해 국내 경제체제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07년 내 가입 목표가 국내의 정치 및 경제 사정으로 인해 '08년으로 연기되었다.

나. 지역 무역협정 체결 현황

□ 범 아랍 자유무역협정(GAFTA)

GAFTA는 아랍 공동시장 구상에 따라 아랍연맹 회원국 22개국 중 17개국이 1997.2.17일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1998.1.1일부로 공식 발효된 지역 무역협정이다.

아랍연맹 회원국 중 모리타니아, 알제리, 소말리아 등 저개발 5개국은 제외되었으며, 협정의 주요 내용은 2004년 말까지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교역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여 역내 무역 자유화를 통한 아랍 경제 건설이다. 이에 따라 2005.1.1일부로 회원국 간 무역거래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었다.

GAFTA 협정은 6장 22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의, 일반 조항, 실질 조항, 이행 감독, 분쟁 해결, 기타 조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Ⅲ. 무역

1. 수출입동향

이라크의 '06년 수출은 2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43.7% 급증하였으며, 이는 주로 원유가 인상에 따른 원유 수출 증대에 힘입은 것이다. 전체 수출에서 원유의 수출은 약 98%를 점하고 있다. 수입은 2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 늘어났으며, 무역수지는 69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07년에는 유가 인상, 석유 생산 증대에 힘입어 수출은 381억 달러로 34% 이상 신장하고, 수입은 248억 달러로 15%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133억 달러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08년에도 고유가, 석유 생산 증대에 따라 수출은 525억 달러로 증가율이 37% 이상 늘어나고, 수입은 289억 달러로 16% 증가하여 235억 달러라는 큰 폭의 무역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라크의 연도별 교역 실적

(단위: 미$백만)

구분	2005	2006	2007*	2008**
總수출	19,773	28,412	38,109	52,460
- 원유	17,610	28,070	31,180	17,460
總수입	18,748	21,480	24,809	28,903

주: 2007년 수치는 추정치, 2008년 수치는 전망치
자료: EIU

이라크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등이며 미국이 전체 수출의 47%를 차지하여 이라크의 최대 수출국이다. 이라크의 주요 수입국은 시리아, 터키, 미국, 요르단 등으로 시리아가 전체 수입시장의 1/4 이상을 차지하여 최대 수입국이다.

2006년도 교역 상대국 비중

이라크의 주요 수출 국가		이라크의 주요 수입국가	
국가명	점유율(%)	국가명	점유율(%)
미국	46.6	시리아	26.9
스페인	22.9	터키	20.6
이탈리아	13.3	미국	12.0
캐나다	13.1	요르단	7.3
기타	4.1	기타	33.3

자료: EIU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한국의 대 이라크 수출은 '05년 중고차 수입연식 제한으로 인해 전년 대비 45%나 급감한 6,818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06년에는 수출이 회복세로 반전되어 59% 이상 늘어난 1억 892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 이라크 수입은 '06년 9억 569만 달러이며 이 중 원유가 9억 515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99.9%를 차지하고 있다.

'07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2% 이상 급신장한 2억 986만 달러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수입은 30억 7,977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0%라는 폭발적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원유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이다.

'08년 들어와서도 큰 폭의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어 8월 기준, 2억 1,162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4.1%나 늘어났다. 이는 승용차와 무선전화기의 급격한 신장세에 기인한다. 한편, 수입은 이라크 정부의 일부 한국 기업에 대한 원유 수출 제한조치로 인해 증가세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118%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이라크 수출은 이런 직수출 외에 인근국인 UAE, 요르단, 시리아 등 3개국을 통한 우회수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06년의 경우 우회 수출이 3억 달러 정도로 직수출 규모의 3배 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07년에도 이런 우회 수출 물량이 유지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한국의 이라크 교역 실적

(단위: 미$ 백만, 증감률 %)

구분	2005	2006	2007	2008(1~8)
수출	68.2(-45.6)	108.9(59.8)	209.7(92.7)	211.6 (74.1)
수입	675.3(65.6)	905.7(34.1)	3079.8(240.1)	3354.5(118.9)

자료: 무역통계(무역협회)

한국의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로 '07년 26억 64백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99.9%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품목별 대 이라크 수입 동향

(단위: 미$ 천, %)

품목명	2005		2006		2007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계	675,299	65.6	905,691	34.1	3,079,767	240.1
원유	675,291	66.2	905,154	34.0	3,078,911	240.2
양가죽	0	-	527	-	818	55.0
알루미늄 스크랩	0	-	0	-	35	-
기타 섬유제품	0	-	0	-	1	-

자료: 무역통계(무역협회)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연초류, 승용차, 화물자동차, 발전기, 자동차부품 등이며, 이들 품목의 '07년 수출비중은 각각 23%, 19%, 18%, 6%, 5% 이다.

이 중 인근국을 통해 우회 수출되는 품목은

○ 요르단: 중고차, 가열난방기, 차부품, 컬러 TV 등
○ UAE: 에어컨, 냉장고, 휴대폰, 담배, 섬유제품 등이다.

주요 품목별 대 이라크 수출 동향

(단위: 미$천, %)

품목명	2005		2006		2007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68,175	-45.6	108,921	59.8	209,857	92.7
연초류	-	-	23,969	-	48,155	100.9
승용차	6,538	-89.3	18,048	176	40,808	126.1
화물자동차	20,455	-35.9	26,061	27.4	37,536	44.0
발전기	58	-90.2	0	-	11,623	-
자동차부품	7,804	-21.7	11,515	47.6	9,872	-14.3
선박용 엔진/부품	-	-	0	-	9,673	-
컴퓨터	862	-70.8	2,776	221.9	8,842	218.5
기타섬유제품	90	-62.2	117	28.9	8,393	7,072.7
계측기	30	3.2	1,692	5,488.2	4,428	161.7
분석시험기	-	-	124	-	3,115	2,405.7
건설중장비	8,489	163.8	2,465	-71	2,740	11.2
펌프	393	936.7	701	78.3	1,857	164.9
원동기	252	-2	1,139	352.7	1,732	52.0
무선송수신기	-	-	0	-	1,721	-
기타의료위생용품	2	697.9	0	-	1,693	-
칠판	-	-	0	-	1,653	-
스위치	6	33.5	73	1,078.9	1,507	1,966.9
칼라 TV			3	-89.1	1,165	43,343.1
기타기계류	501	1,731.3	0	-	949	-

자료: 무역통계(무역협회)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규제제도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되기 전까지 이라크와의 모든 교역은 정부 승인사항이었으나 이라크 전쟁 직후 미주도 연합국 임시행정처(CPA)가 명령 12 호를 발표하여 대부분의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 대신 재건세 5%를 부과하였다.

2004.4.16 일부터는 아랍 걸프 산유국의 관세율과 같은 수준이 5% 단일 관세를 적용하여 시장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다.

이라크의 관세업무를 총괄하는 정부부서는 재무부이고, 관세의 징수관리는 산하 관세청(General Commission of Custom Authority)이 맡고 있으며, 관세청장은 D.G(Director General) 급이다.

나. 비관세 장벽

네거티브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입 금지품목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전면적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전쟁 이후 이라크 정부는 비관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급증하는 중고차 수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4.10.20 일 수입 중고차 연식을 2000 년 이후로 정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2005.9 월에는 중고차 수입 급증에 따른 교통 체증, 환경 오염 등의 이유로 2005.10.1 일부로 수입 중고차의 연식을 2004 년산 이후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각 결의(resolution)를 통해 중고차의 수입 제한을 강화해 오고 있다.

다. 수입품 사전 품질 검사제도 시행

이라크 임시정부 각료회의는 2004.12.21 일 이라크 전쟁 이후 활동을 중지했던 '표준화 및 품질 검사 위원회(State Committee of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의 기능을 빠른 시일 내 부활 시켜 상품 수입에 앞서 반드시 동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이후부터는 동 위원회가 발행한 승인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 위원회 위원은 이라크 산업광물부(Ministry of Industry & Minerals) 전문가를 비롯하여 국영기업 사장, 주요 제조업체 사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수입 상품이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지, 인체에 해로운 제품은 아닌지, 불법 복제품은 아닌지 등을 심사하나 구체적 실행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라. 수출규제: 참고

이라크에도 수출 금지품목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특히 전선용 동 케이블을 반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라크의 수출 금지품목

식료품	설탕, 홍차, 수입 쌀, 수입채소, 식용유, 지방, 렌틸, 병아리 콩, 마른 콩, 분유, 동물 사료용 옥수수 등
동물	암낙타, 염소, 소, 양, 물소, 당나귀, 말, 사슴, 노새
제조상품	차량, 기타 기계류, 철근 콘크리트, 철근, 아연도강판 철강시트 및 판재, 목재, 미네랄 워터 파이프. 피팅류, 세라믹 및 욕실 마감재, 동, 납판
기타	덩어리 비누 및 방향제, 데이터 팜 묘목 및 줄기, 고고학적 유물

4. 대한수입규제 동향

그동안 한국산 중고차는 대 이라크 수출 물량이 연간 27만 대 이상이었지만 2005.10.1 일부로 2004년 이전 차량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대 이라크 중고차 수출이 9월부터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다. 이라크 정부는 저렴한 중고차가 자살폭탄테러에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 유류난 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차량 억제책의 일환으로 동 조치를 취했으며, 한시적인 조치이나 2007년에도 동 수입제한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산 중고차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어 수입규제정책 완화를 이라크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동 조치의 해제가 짧은 시기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라크 정부입찰 시 관행적으로 유럽, 미국, 일본산에 국한하고 한국 기업이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는 사례가 일부 있어 공공사업부 등 관련 부처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강구 중이다.

2007. 2월 제2차 한-이라크 경제공동위 개최에 이어 4월 말리키 총리의 방한으로 한국과 이라크 상호 간 경제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5. 관세제도

2003년 전쟁 이후 미 군정당국은 CPA 포고령 54호를 발표, 2004.4.16일부터 재건세(Re-construction Levy)라는 명목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입관세는 H.S. 세번 분류방식에 의거 C.I.F 이라크 도착 가격을 기준으로 5%의 재건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세율이 단순한 관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동 재건세 부과대상 수입품 중에서 식료품, 의약품, 의류, 서적, 인도물품, 재건용 반입품(CPA, 연합군, 재건공사 컨터랙터, NGOs, 국제기구, 외교관 및 coalition governmen t, Oil for Food 계약 이행 물품 등)의 경우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이다.

6. 주요인증제도

이라크 내에는 인증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산 등 각지에서 생산된 불법 복제, 모조품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고 있으나 품질규제나 인증, 검사가 사실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7. 지적재산권

이라크는 지적 소유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가맹국으로 원칙적으로 지적 소유권 침해 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2003년 미 임시행정처(CPA) 주도로 선진국 수준의 지적 소유권 보호법으로 개정되어 최소한 법적 장치 면에서는 여타 국가에 비해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

관련 법규로는 2004.4.29일 CPA 행정명령 29호로 공포된 지적 재산권법이 있으나 이 법규의 효력과 집행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치안질서도 확보하지 못한 현재의 이라크 상황에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유효한 집행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실제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은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지적 재산권을 지켜줄 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는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모조 제품, 불법 복제 CD 등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이라크 간에는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별도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8. 통관/운송

가. 개관

이라크는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 따라 상품의 통관과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륙 운송의 경우 이라크의 불안한 치안 상황으로 추가의 보관 및 보안 경비가 소요된다는 점이 다른 국가와의 차이이다.

국제 공항은 바그다드 공항, 바스라 공항, 아르빌 공항, 슐레이마니아 공항 등이 있으며, 가장 주요한 공항은 바그다드 공항이다. 한편 모술, 키르쿠크에는 국내선 공항이 있다. '08. 7월 완공을 목표로 시아파 성지인 나자프에 국제공항이 건설 중이다.

국제 공항들은 계속된 전쟁과 UN 경제제재로 인해 노후화되었으며 '03년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정상 운영이 곤란하였다. 바그다드 공항은 '04. 8월에 관리권한이 이라크에 이양되었으며, 이라크 국영항공사(Iraqi Airway)가 요르단, 시리아 등 인근 중동국에 운항을 재개하였다. 외국 항공사로는 Royal Jordan Air, 국제 항구로는 남부의 바스라항과 움까스르항 2개가 있으며, 상업 화물은 주로 움까스르항을 통해 수입되고 있다. 움까스르항은 종전 이후 한국 부산항에서 이라크 움까스르항까지 선박 운임은 20ft 컨테이너 기준으로 3,700달러 상당이며, 두바이항에서 움까스르항까지는 1,500달러 상당이다. 움까스르항에서 바그다드까지 육로 운송 요금은 1,000달러 상당이나, 운송과정의 도난, 파손 등의 위험으로 보관 및 보안 경비는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나. 통관절차

이라크 세관의 통관서류 및 절차는 인근국가와 유사하다. 즉, 상업송장과 원산지 증명서, 포장 명세서를 필요로 하며 세관원이 육안으로 물건을 검사한 후에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에 통관 절차가 종료된다.

이라크 내 세관 가운데 우리나라 화물이 가장 많이 반입되는 카라마/트레빌 세관의 경우, 이라크 인근 토착주민들이 세관 보조원으로 많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에 의한 부정 행위(뇌물 수수, 테러세력과의 연계 등)로 세관행정이 불투명하여 중앙정부가 투명 세관 행정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행정력 미흡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다. 운송

통관절차상 별다른 애로는 없어 바그다드 공항, 바스라나 움카스르 항구 등의 국경 세관을 통해 이라크 내륙까지는 상업 화물이 비교적 자유롭게 반입되고 있는 편이나, 국경 세관에서 수도 바그다드까지 도로 치안상황 악화로 특별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운송 도중 화물 탈취 등이 잦아 안전한 화물 운송을 위한 경호회사 채용 등 보안조치 강구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라크 움카스르 항구의 경우 매달 약 65척의 선박이 접안하고 있으며, 21개 berths가 가동중이며, 250여 명의 항만 경비원이 항구를 지키고 있어 비교적 안전한 항구이다. 또한, 두바이-움카스르 구간에는 페리선도 운행하고 있어 원활한 수출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을 출발한 화물은 대체로 요르단의 아카바항이나, 시리아의 타르투스항,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항을 거쳐서 이라크로 반입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국내 선사와 연결된 Shipping Agency가 있다.

한국발 이라크행 화물에 대해서는 종전 직후엔 아카바항을 이용하는 것이 운임 경쟁력이 있어서 운송 지연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되었으나, 두바이 경유 운임이 하향 조정되면서 움카스르-바그다드 간 딜리버리 기간이 짧고, 내륙 운송 시 국경 통과의 번거로움이 없어 이라크 바이어들에게 이러한 장점이 부각되면서 두바이/움카스르 루트 이용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종전에는 본선의 선주가 두바이-움카스르 간 환적(T/S)을 허용하지 않아 두바이에서 컨테이너를 Cross Stuffing해야 했기 때문에 화물의 분실 및 손상, 추가 비용 발생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두바이에서 Cross Stuffing하지 않고 직접 한국에서 선적한 컨테이너를 그대로 이용하여 움카스르 및 내륙지역까지 서비스가 가능해 한결 편리한 운송 경로로 자리잡고 있다.

Ⅳ. 투자

1. 투자환경

가. 개황

이라크는 자원 보유 대국으로 1,125억 배럴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세계 3위의 석유 대국이며, '07년에는 서부지역에서 대규모 천연가스전이 발견되어 천연가스 부국이기도 하다.

이라크 정부는 미국과의 전쟁 이후 중동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폭넓은 투자개방정책을 채택하여 외국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종전 이후 미 군정 지배하에서 이라크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허용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등 이전의 외국인투자 제한 정책으로부터 투자유치 개방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인과 동등 대우를 부여하고, 외국인의 단독 투자, 이라크 투자자와 공동 출자 등을 허용하였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사 설치, 과실송금, 기타 영업과 관련한 정상적인 활동을 허용하였다.

쿠르드 자치정부는 '06.8월 독자적인 투자법을 제정하여 개방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이라크 중앙정부도 '06.12월 투자법을 제정하여 외국기업의 투자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라크는 1980~88년(8년) 이란전, 12년간의 유엔 경제 제재, 쿠웨이트 전쟁, '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및 이후 저항세력의 테러 등으로 산업 시설이 크게 파괴되고 노후화되어 개발 수요가 엄청나다. 종전 이후 미국 주도로 재건사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개발을 필요로 하는 산업 수요가 엄청나다.

하지만, 이라크의 투자환경은 테러, 치안 불안 등으로 투자 위험도가 매우 높아 투자여건은 미성숙된 실정이다. 게다가, 투자법의 시행을 담보하는 하위 법령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투자 지원체제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종파간 분쟁, 테러 등 치안 불안이 여전하여 외국인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투자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전후 CPA에 의해 급격히 진행된 투자 개방조치에 대한 이라크 정부 내 상당수 인사들이 지니고 있는 반감이다. 이들은 석유자원에 대한 이권을 외국인에게 넘겨주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라크 정부내 상반된 이해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 지가 이라크 투자환경의 성격을 규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라크 국회에서 석유법 논의가 어떻게 결론 날지도 이라크 투자환경의 주요 결정 요인이다. 특히, 쿠르드 지방정부와 공동 석유개발 계약을 체결하려는 외국 석유기업에게는 이라크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투자결정의 주요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나. 환경 변화

1) 이라크 전쟁(2003.3) 이전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 치하에서는 非 아랍계 국민들의 경우 민간 투자를 일체 허용하지 않았고 이라크 헌법에도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었다.

다만, 非 아랍계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정부와 계약을 맺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라크 회사와 합작투자 파트너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出資는 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통제하였다.

2) 2003. 3월 이후

이라크전 종전 이후 미 군정 지배하에서 이라크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허용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등 이전의 통제 일변도 정책에서 유치 정책으로 180도 전환하였다.

2003.9.19일 연합국 임시행정처(CPA) 행정명령 39호로 공표된 외국인 투자법에 의하면, 외국인은 천연자원 채굴 및 1차 가공(primary extraction and initial processing)을 포함한 천연자원 분야, 부동산 매매 등을 제외한 모든 경제부문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투자명령 하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도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이 100% 단독 투자할 수도 있으며 이라크 투자자와 공동 출자도 가능하게 되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사를 설치 할 수도 있고 과실송금이나 그밖에 영업과 관련한 정상적인 활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다. 다만, 동 법은 금융 및 보험업에 적용되지 않는 바, 금융, 보험업은 따로 정한 법률에 의해 조건부 투자 허용 대상이었다.

'06.8월 쿠르드 자치정부는 신투자법안을 마련 외국인 투자유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라크 정부도 06.12월 새로운 투자법을 제정하여 외국투자 유치를 위한 법적 기반은 조성하였다.

이에 이라크의 경제 성장 잠재력, 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수익률이 인근 중동국가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단기적으로는 정정 불안, 치안 불안이 개선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외국인의 실질적인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투자관련 정부기관

중앙정부에서 무역부(Ministry of Trade)가 투자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투자법에 의거 수상 직속기관으로 투자위원회(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가 2007.11월 설립되어 투자 업무를 하고 있다. 나자프주, 바빌주, 바스라주, 살라아딘주 등 지방정부도 주 투자위원회를 설립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의 투자기관은 아직 내부 조직이 정비되지 않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북부 쿠르드 지방정부에는 06. 7월 제정된 자체 투자법에 의해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가 구성되어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라크 투자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9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라크 전체의 투자정책을 기획하고, 각종 투자관련 업무를 전담 하는 중앙기관이다.

라.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이라크 중앙정부에서는 외국인의 투자진출을 지원하는 기관을 투자법에 규정하였으나 '08년 5월 현재까지 관련 서비스기관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 쿠르드 지방정부에서는 쿠르드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쿠르드 개발공사(Kurdistan Development Corporation Ltd., KDC)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이라크는 '03년 전쟁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가 시작되면서 '04년에 3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 하였으며, '05년에는 73% 늘어난 5억 2,0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였다. '06년에는 48% 이상 줄어든 2억 7,000만 달러를 유치하였다. 이는 이라크의 치안상황 개선 미흡, 정정 불안으로 인해 투자환경이 악화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라크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동향

	2003	2004	2005	2006
FDI 유치(US억 달러)	0	3.0	5.2	2.7
-GDP내 FDI 비중(%)	0	1.2	1.5	0.6
-1인당 FDI(US 달러)	0	11.6	19.4	10.0

자료: BMI(Q2, 2008)

주요 투자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일본 등이며, 이들의 투자 분야는 탄화수소(hydro-carbon), 소매업, 금융업, 건설업 등이다. 이라크 치안여건으로 인해 투자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

석유 부문에는 쿠르드 지역의 유전개발에 외국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데, 노르웨이의 DNO사, 미국의 Hunt Oil사, 캐나다의 Heritage사, 프랑스의 Perenco사 등이 쿠르드 지방정부와 유전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DNO사는 발굴을 끝내고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

금융업 부문에는 영국의 Standard Chartered Bank, HSBC Holding, 쿠웨이트의 National Bank of Kuwait, 요르단의 Arab Bank, 바레인의 Ahli United Bank, 레바논의 Byblos Bank 등이 영업 허가를 득하였으나 치안을 이유로 이 중에서 Byblos Bank만 쿠르드의 아르빌에 지점을 개설, 영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은행들은 진출을 주저하고 있다. HSBC와 National Bank of Kuwait는 이라크의 민간은행인 Dar es-Salaam Bank, Credit Bank of Iraq 등의 지분을 인수하여 금융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미국의 S.J.C.O Co.가 쿠르드 지역 도훅의 시멘트 공장에 투자하고 있으며, Yuniss Shabo Nunu사가 도훅에 가스통 생산 공장에 투자하고 있다.

관광업 부문에는 레바논의 Malya Al Qabidha사가 쿠르드 지역의 아르빌에 호텔에 투자하고 있다. 농업 부문에는 UAE의 Bn Khalid Trading Group이 도훅에서 농산물 생산에 투자 진출하고 있다. 이외 무역업 부문에 미국의 American (azku) Co.사와 레바논의 Alwarida Co.사가 쿠르드의 아르빌에서 지사를 설립, 영업 중이다.

3. 우리기업 투자동향

이라크 치안 악화와 테러, 우리정부의 입국비자 불허조치로 '06년 말까지 이라크 진출 한국기업은 전무하였고, LG전자,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이 현지인 관리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한국 직원 파견은 없었다.

LG전자가 치안이 안정된 쿠르드지역의 아르빌에 '06년 12월 최초로 정식 지사를 개설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이외 건설업체로 Ulenc, KoriKurdi 등도 현지 건설공사, 부동산 개발 등을 위해 지사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쿠르드 지방정부와 '07년말 유전개발 MOU를 체결한 한국석유공사 주도 컨소시움, 상하수도, 도로 등 SOC 건설 MOU를 체결한 쿠르드 SOC 컨소시움 등이 '08년 중에 지사를 설립,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쿠르드 지역을 제외한 이라크의 대부분 지역은 테러, 납치 등으로 외국인의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당분간 한국 기업의 진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개관

'03년 전쟁 이후 USAID의 Economic Recovery and Reform 계획에 의거 신 경제정책이 추진되면서 투자부문에도 전반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종전 이후 연합국 임시행정처는 CPA 명령 39호(03.9.19)에 의거 종전의 투자관련법 조항을 무효화 시키고 새로운 투자 명령을 공포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정책을 추진하였다.

동 명령에 의해 외국인 투자자도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으며, 외국인이 100% 투자할 수도 있게 되었고, 이라크 투자자와 공동 출자도 가능하게 되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사를 설치할 수도 있고 과실송금이나 그밖에 영업과 관련한 정상적인 활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인근 중동 국가보다 유리한 투자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06. 5월 정식 출범한 현 정부는 '06년 말 미국의 재건자금 집행이 만료됨에 따라 재건 프로젝트와 신규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07년부터는 인근 아랍국 을 포함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투자법이 2006년 10월 국회를 통과한 뒤 12월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를 거쳐 제정되었다.

이 투자법에는 외국인의 100% 지분 출자를 허용하고 과실 송금을 보장하는 등 인근 아랍 산유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에 비해선 획기적인 조치를 담고 있어서 매력적인 투자 유치 여건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2007. 6월까지 투자법의 집행을 보장할 하위 법령의 제정, 투자관련 기관의 설립 등 투자법의 집행과 지원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지 않고 있으며, 이라크의 치안 불안이 여전하여 외국인의 투자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실정이어서 투자를 실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나. 투자법 개요

이라크는 재건사업의 투자재원 조달 및 민간부문 외자 유치를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6. 12월 투자법을 제정하였는데, 다음은 투자법의 주요 내용이다.

1) 투자지원조직

- ㅇ National Authority of Investment: 수상 직속기관
  -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5 년 임기, 내각 추천으로 국회 승인), 해당 분야 10 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9 인으로 위원회 구성
  - 기능: 국가 투자정책 기획, 투자규제 조치, 투자규제 감독, 연방정부의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담당 등
  - 지역과 주의 투자부서 대표자 임명
- ㅇ 지역 투자청(Territorial Authority): 지역정부의 투자 승인과 투자 기획담당
- ㅇ 주 투자청(Governorate Authority): 주정부내 투자관련 부서

2) 목적

- ㅇ 이라크 발전에 기여하는 현대적 기술 이전과 투자 촉진
- ㅇ 투자 프로젝트 달성에 필요한 시설 공여로 외국 투자와 이라크 민간부문 지원, 국내외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 촉진
- ㅇ 시장요구에 부합하는 인적 자원 개발 및 이라크인에게 고용기회 제공
- ㅇ 투자가의 권리와 재산 보호
- ㅇ 수출 증대 및 이라크 무역수지 활성화

3) 지원 수단

- ㅇ 특혜 조치와 경쟁력 증진 지원 조치
- ㅇ 관세와 각종 세제의 면제, 부가적 혜택 제공

4) 절차

○ 투자 신청서 접수 후 45 일 이내 허가 결정
○ 단, 투자금액이 250 만불 초과할 경우 내각의 승인 요
○ 구비 서류
- 소정 신청서(application form prepared by the Authority)
- 은행의 재정보증(Financial guaranty from an accredited bank)
- 투자가의 기 투자프로젝트(Projects undertaken by the investor in or outside Iraq)
- 투자프로젝트의 명세서와 경제 효과(Details of the project to invest in and its economic usefulness)
- 프로젝트 추진 일정(Schedule fo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5) 투자가에 대한 혜택과 권한

○ 국적에 관계없이 동등한 특혜 부여
○ 투자목적의 외국인 토지 보유 허용
- 투자 프로젝트 존속기간 동안(50 년 이내, 위원회 승인 하에 연장 가능) 토지 임차
○ 투자 자본 반입과 과실 송금 허용(투자법과 이라크 중앙은행의 규정)
○ 권한: 이라크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주식과 채권 거래, 주식과 채권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토지 임차, 국내외 보험회사의 투자 프로젝트 보험, 국내외 은행에 이라크 디나르화나 외국환 계좌 개설
○ 보장
- 투자 프로젝트에 적합한 이라크 근로자 없을 경우, 외국 근로자 채용 가능
- 투자가와 관련 근로자의 이라크 체재 및 출입국
- 법원 판결 없이 투자 프로젝트의 국유화, 몰수 금지
○ 투자법 상의 보장, 면제와 권리들에 대한 소급 적용 배제

6) 투자가의 의무

○ 투자 자산의 도입과 설치, 프로젝트의 사업 시기 등 신고
○ 이라크 회계법인에 의해 감사 받는 상설 계좌 보유
○ 프로젝트의 경제적, 기술적 혜택 보고서, 위원회 요청 자료와 서류 제출
○ 투자 프로젝트용 수입 물자와 면세 물자에 대한 기록 유지
○ 환경 보호와 품질관리시스템 준수
○ 임금, 면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에 관한 이라크 법률 준수
○ 투자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수행(6 개월 이상 지체 시 벌금이나 허가 취소)
○ 이라크 근로자 교육 및 훈련, 이라크 근로자 우선 채용 등

다. 투자 우대/제한 분야

투자 우대 분야는 특별히 규정되지 않았으나, 소매 분야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 기간 동안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이라크 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석유, 천연가스의 생산과 채굴 분야는 현재 제정 중인 석유법에 의해 규율하도록 하여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은행업과 보험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라. 투자 인센티브

1) 법인세 우대

외국 투자기업에 10년간 조세를 감면해 주며, 합작 법인일 경우 이라크 파트너의 지분이 50% 초과 시 이라크 파트너의 지분이 늘어남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조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 준다. 그러나 프로젝트 자산을 이라크 법에 반해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에는 세금(관세 포함)을 추징하고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수입관세 면제

투자 프로젝트용 수입 자산이 투자 승인 후 3년 내에 수입될 경우 행당 자산의 수입관세를 면제하여 주며, 투자 프로젝트의 확대를 위하여 수입한 자산은 위원회에 신고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수입할 경우 해당 관세를 면제해 준다.

또한 투자 자산가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도 수입 관세를 면제해 준다.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투자진출형태

현행 이라크 기업법(Company Law)과 연합국 임시행정청(CPA)의 명령 64호에 의해 설립 가능한 회사 형태는 유한회사(주식회사 포함), 합자회사, 공사 합작회사 등이 있다. 외국 투자기업은 이들 회사 형태를 바탕으로 지사, 현지법인, 합작투자법인 등을 설립할 수 있다.

○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개인과 25인 이하 그룹에 의해 설립되며 출자액 한도 내에서 간접의 유한 책임을 부담
- 최소 자본금은 1백만 이라크 디나르

○ 합자회사(joint liability company)
- 2인 이상 25인 이하의 사원들로 설립되며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됨.

○ 공사 합작회사(mixed public and private sector company)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1인 이상 사원들로 설립됨.
- 공공부문의 지분은 최소한 25% 이상이어야 함.

현지법인 설립 신청부터 승인 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2주 정도이며 현지 법률 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지사개설 관련 법령: 무역부 장관령 149호

이라크는 무역부 장관령 149호(Registration of Branches and Trade Representation Offices by Foreign Companies)에 의해 외국기업의 지사 및 사무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3년 9월 19일자 39항과 같이 제정되고 46호와 같이 개정을 거친 CPA 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사나 법인을 설립하고 이라크 내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

○ CPA 규정 39항에 의거하여 설립된 외국계 지사나 법인들은 각 국가법을 통해 현지에서 등록된 사업체 명을 가지고 이라크 내에서 사업이 가능하다. 이라크 내 사업 등록 자격은 에이전트, 유통, 무역 등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사업체들에게 부여된다.

○ 이라크 무역부는 CPA규정 39항을 준수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각 국가법을 통해 설립된 사업체의 지사 및 법인과 관련한 5조의 내용을 주로 참고한다.

○ 이라크 내에서 사업활동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은 이라크 무역부에서 제시하는 규정에 의거해 회사 등록처(Registrar of Companies)에 등록하면 된다. CPA명령을 포함한 이라크 무역부에서 제시하는 등록규정의 예외가 아닌 경우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외국 기업들 또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 등록을 마친 외국인들은 보증금과 같은 형태의 재정여건 없이(소매상 관련 투자자 제외) 이라크 내 규정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의 활동이 가능하다.

○ 이라크 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은 무역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을 기재하여 회사 등록처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처에 신청서 제출 시에는 원본 2부를 제출하며 1부는 등록처에서, 나머지 원본 1부는 신청자가 보관한다.

다. 법인 설립절차

1) 설립 절차

이라크에서 법인(연락사무소 포함)을 설립하려는 외국인 투자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다.

○ 외국인은 이라크 무역부 장관령 149호「외국기업의 지사 및 연락사무소 등록 (Registration of Branches and Trade Representation Offices by Foreign Companies 」에 의거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

○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 등록처에 제출

○ 회사 등록처의 신청서 검토 및 접수
- 신청서 검토
- 신청서 오류 발견 시 신청업체에게 반송
- 신청서 오류가 없을 시 모든 구비서류 접수를 신청업체에 통보
- 접수와 동시에 등록 데이터 입력
- 임시 고유등록번호 배부

○ 회사 등록처는 접수 후 10일 내 승인 여부를 결정, 통보
- 승인기준은 무역부 규정을 준수 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는 없음.

○ 승인 직후 회사 등록처는 신청업체에게 사업자 등록허가서 발급

○ 승인된 신청업체는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정식 사업자 허가번호 취득

○ 회사 등록처는 업체 등록내역을 공고하고 현지 일간지에 게재

○ 회사 등록처는 등록허가를 받은 업체들의 내역을 노동부, 예산부 등 관련 부서로 통보

○ 회사 등록처는 등록된 사업자 기본정보를 무역부 사업자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대외 공개

○ 사업자 등록 수수료: 건당 2십만 디나르(약 157달러) 소요
- 신청서 제출시 등록비의 50% 지불
- 사업자 등록 승인 및 임시번호 부여 시 잔액 50% 지불
- 미 승인 시 신청업체는 50% 잔여등록비 지급의무 없음. 그러나 기지불한 등록비 50%는 환급 불가

○ 사업자 등록 미 승인 시 회사 등록처는 신청업체에게 미 승인 사유를 신속히 통보

○ 신청업체는 미 승인 사유에 대해 30일 내에 이라크 무역부를 상대로 이의 제기 가능

○ 무역부는 이의 신청일로부터 30일내 미 승인 사유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무역부 조사결과 또다시 승인이 거부될 시, 신청업체는 30일 내에 이라크 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있음.

○ 등록업체의 세부 정보의 변경 시 변경내용 통보
- 해당연도 12월 31일 이내에 통보해야 함.
- 사무소 또는 행정 대리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7일 이내 회사 등록처에 신고
- 변경 사안에 대한 통보의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음.

○ 사업자 등록에 따른 법적 효력은 사업자 등록 승인일로부터 발효

2) 법인설립 필요서류

법인 설립 시 제출해야 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소정의 신청서
○ 본국으로부터 승인 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회사 정관 사본 1부
○ 하기 요건사항을 갖춘 협조 공문
- 이라크 지사 책임자, 법률대리인, 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책임자 인적 사항(상기3인 모두 이라크 주재 요망)
- 본사의 책임자 서명
○ 최신 회계 연도 결산자료
○ 등록업종이 소매상일 경우 미화 일십 만불 계좌 확보 및 증빙자료 제출(등록승인 후 실제 영업개시 전까지 회사 등록처로 사후 제출 가능)

○ 본사와 이라크 지사 관련 항목에 기재된 인적 사항과 관련된 여권(외국인) 또는 신분증(현지인) 사본
- 신분증에 명시된 인적 사항은 제출양식에 기재된 동일 인물이어야 하며 향후 등록과 관련하여 회사 등록처에서 신분증 원본제출 요구 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법인명
- 상호
- 업종
- 이라크 주재 사무소 주소
- 아래 해당인의 이라크 내 연락 가능한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 이라크 지사장
- 이라크 내 법률 대리인
-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책임자
- 상기 3인 모두 이라크 내 연락처 명시 요망

3) 주요 지원기관

○ Ministry of Trade(무역부)
Registration Department
- 주소: Date Board Building, Baghdad, Iraq
- 홈페이지: www.motiraq.org
- 담당: Mrs. Kansa(Director General)

4) 참고: MINISTRY OF TRADE, 장관령 NO. 149, 2004.2. 29: Registration of Branches and Trade Representation Offices by Foreign Companies

□ Section I

○ Introduction
- Registration of Branches and Trade Representation Offices by Foreign Companies

·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CPA") Order No. 39 on "Foreign Investment", dated 19 September 2003, as amended by CPA Order No. 46, dated 20 December 2003, establishes that foreign investors may do business in Iraq by, among other things, establishing branches or trade representation offices.

· Pursuant to CPA Order No. 39, a branch or trade representation office may do business in the name of and for the account of a business entity organized under the laws of a foreign country. In no case shall the branch or trade representation office's foreign character disqualify it from registering to conduct business in Iraq, whether the business is in the nature of a commercial agency, distributorship, trading company or otherwise.

· The present Ministry of Trade Ministerial Instruction implements CPA Order No. 39, and in particular Section 5 thereof, as to branches and trade representation offices of entities organized under the laws of foreign countries.

· By virtue of CPA Order No. 39, Regulation No. 5 of 1989 on "Branches and Offices of Foreign Companies and Economic Establishments" and any instructions thereunder contrary to this Instruction are nullified. Branches and offices currently registered under that Regulation are regarded as registered under this Instruction and shall provide updated information as of the time this Instruction requires.

· By virtue of CPA Order 39, Law No. 51 of 2000 on "Commercial Agency" and any instructions thereunder are nullified. Commercial agents on behalf of natural or juridical persons outside Iraq shall henceforth be regarded as subject to the same legislation as agents performing similar services on behalf of natural or juridical persons inside Iraq. Any other instruction, regulation or legislation conflicting with CPA Order No. 39 as implemented in this Instruction shall also be regarded as null and void.

□ Section II

○ Business Entities Subject to this Instruction

- Foreign business entities wishing to establish themselves to conduct business in Iraq are subject to registration by the Registrar of Companies, Ministry of Trade, in accordance with this Ministerial Instruction. Unless otherwise exempt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of Iraq, including CPA Orders, foreign companies working under contract in Iraq are also subject to registration under this Ministerial Instruction.
- Such foreign entities may conduct any business permissible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of Iraq, including CPA Orders, without being required to post any advance financial bonds, guarantees or similar surety (except for a foreign investor engaging in retail sales).

□ Section III

○ Application and Procedures for Registration

- A foreign business entity wishing to register to do business in Iraq shall complete and file with the Registrar of Companies an Application in the form attached as Annex I to this Ministerial Instruction, Two (2) copies of the completed form should be brought to the Registrar of Companies at the time of application (the Registrar of Companies will keep one and the other will be returned with a signed checklist to the applicant)

· Each Applicatio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concerning the foreign business entity proposed to be registered by the Registrar of Companies:
· legal name;
· trade name;
· type of business activity;
· business address of its offices in Iraq;
· telephone, facsimile and electronic mail in Iraq, where available;
· name,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of; (1) the chief management official in Iraq; (2) the agent for service of legal process in Iraq; and (3) the authorized represent tative for filings with the Registrar of Companies -- (all of three must reside in Iraq);
· a yes/no question asking if the proposed entity in Iraq will be involved in: (1) land ownership; or (2) natural resource extraction or initial processing; or (3) retail sales;
· name, business address, telephone, facsimile and electronic mail of its agent for service of legal process and chief executive officer (or equivalent) in its home country of establishment or incorporation;
· to the extent applicable: (1) the amount of its charter or authorized capital (specifying currency); (2) net worth at close of most recent financial period (indicating date and specifying currency); and (3) the names and addresses of any owners holding ten percent (10%) or more of its equity; and

· perjury statement to be signed on behalf of the foreign business entity proposed to be registered by the Registrar of Companies.

- The following documentation shall be submitted with each Application concerning the foreign business entity proposed to be registered by the Registrar of Companies:

·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s issued and authentica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the home country of origin,

· a copy of the company's charter or equivalent, authentica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the home country of origin;

· a letter on the stationery of the applicant company, signed by an officer or director of the company, authorizing the registration of the business entity in Iraq, consenting to service of process in Iraq, and identifying the chief management official in Iraq, the authorized agent for service of legal process in Iraq, and the representative for filings with the Registrar of Companies in Iraq (all three must reside in Iraq);

·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company for the last fiscal year;

· if the proposed entity is planning to operate in retail sales in Iraq, a bank statement showing that the sum of one hundred thousand United States dollars ($100,000.00) has been deposited in a non-interest bearing account (this can be furnished to the Registrar of Companies at a later date and the non-submission of it shall not be grounds for rejection of the Application; however, the bank statement will have to be furnished before actual sales activity may begin) in accordance with the Ministerial Instruction on retail trade;

· a copy of the passport (for a foreign citizen) or civilian identification card (for an Iraqi citizen) of the authorized representative for filings with the Registrar of Companies, as prescribed in the letter referred to in Item (c) in paragraph 3. above and as in Item (f) in paragraph 2. above (this is the person who is to actually submit the Application and he or she should also bring at the time of application, and in all future interactions with the Registrar of Companies, the original of his or her passport (for a foreign citizen) or civilian identification card (for an Iraqi citizen)).

-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a foreign business entity to do business in Iraq (including all required information and documents) may be filed in either the Arabic or English language. Translations shall be provided of home country documents not in the English or Arabic language.

-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the Registrar of Companies shall:

· review the Application for completeness;

· if the Application is incomplete, return it to the applicant company without collecting any fee;

· if the Application is complete, provide a signed checklist to the applicant company showing that all the required documentation has been received;

· log the accepted Application in the Registrar of Companies' official record as of the date of its receipt; and

· assign a temporary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to the Application.

- The Registrar of Companies must approve or disapprove each Application within ten (10) business days from the day of its submission by the applicant company. The Registrar of Companies may only disapprove an Application for failure to comply with this Ministerial Instruction.

- Upon approval of each Application, the Registrar of Companies shall promptly issue to the applicant company a registration license bearing the corresponding business entity's name and the Registrar of Companies' official seal, together with a permanent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 The registered business entity shall acquire legal recognition as from the date of issuance of its registration license and permanent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by the Registrar of Companies. A registered entity is present in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Iraq.
- Upon issuance, the Registrar of Companies shall publish each registration in the "Companies Bulletin" and in at least one (1) daily newspaper of wide circulation in Iraq.
- The Registrar of Companies shall forward copies of each Application as approved, together with its respective permanent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as issued, to the Ministry of Finance (Tax Department), Ministry of Planning,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airs, and such other Iraqi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as reasonably necessary.
- The Registrar of Companies shall enter basic summary information on registered companies into a Ministry of Trade electronic database accessible to the public, including over the Internet. Implementation of this function shall not, however, be grounds for delay of registration.

□ Section IV

○ Fees Payable

- single standard registration processing fee shall be due and payable, in the amount of two hundred thousand dinars (ID200,000.00), or equivalent, for each Application payable as follows:
- one-half(1/2) of the fee shall be paid upon submission and filing of the Application; the remaining one-half (1/2) of the fee shall be paid upon issuance of the registration and permanent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by the Registrar of Companies; and provided, however, that in the event of disapproval of an Application, the remaining one-half (1/2) of the fee referred to in Item (ii) above shall not be due or payable, and the one-half (1/2) of the fee referred to in Item (i) above shall be forfeited by the Registrar of Companies.
- The Registrar of Companies shall collect said fees and issue the proper receipt evidencing payment directly to the Applicant or its representative.
- The Registrar of Companies shall keep regular and accurate records and accounts to account for all registration fees collected.

□ Section V

○ Appeal for Disapproval of Application

- In the event the Registrar of Companies disapproves the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a foreign business entity, the Registrar of Companies must promptly notify the applicant company in writing stating the reasons for its disapproval. The applicant company has the right to contest the disapproval of the Registrar of Companies before the Minister of Trade within thirty (30) day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The Minister of Trade shall review the disapproval within thirty (30) days from the date of submission of the applicant company's appeal. If the Minister of Trade also disapproves the Application, the applicant company has the right to appeal the Minister's decision before the competent court of law within thirty (30) days of the date of the decision, which court shall have final disposition of the matter.

☐ Section VI

○ Update of Information at the Registrar of Companies

- Information filed in connection with each registration must be correct as of the time of filing. Subsequent changes may be filed as they occur but at least by December 31 of each year, and address changes for the company's principal office in Iraq or its agent for service of legal process within seven (7) days of their occurrence. Companies will be held responsible for notifications and correspondence delivered to the address in the Registrar of Companies' files.

☐ Section VII

○ Entry into Force of this Instruction

- This Ministerial Instruction shall enter into full force and effect upon its publication in the Companies Bulletin, as of the date of its signature.
- The Registrar of Companies shall ensure that the section of the Companies Bulletin publishing this Ministerial Instruction is published in at least five (5) newspapers chosen to accomplish the broadest possible circulation in all regions of Iraq.

· Signed: Dr. Ali Allawi / Name: Dr. Ali Allawi
· Title: Minister of Trade, Republic of Iraq

MINISTRY OF TRADE MINISTERIAL INSTRUCTION NO. 149 DATECM=EBRUARY 29, 2004: ANNEX I

Registration of Branches and Trade Representation Offices by Foreign Companies

<table>
<tr><td colspan="3">Continuation of any items above (please make note of item number from page 1)</td></tr>
<tr><td colspan="2">Continuation of Item_____</td><td>Continuation of Item_____</td></tr>
<tr><td colspan="2">Continuation of Item_____</td><td>Continuation of Item_____</td></tr>
<tr><td colspan="2">Continuation of Item_____</td><td>Continuation of Item_____</td></tr>
<tr><td colspan="3">10. Under the penalty of law, I hereby declare that al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form and other submitted materials is correct, complete and authentic.</td></tr>
<tr><td>Printed name
(authorized representative for filings)</td><td>Signature
(authorized representative for filings)</td><td>Date
(DD/MM/YYYY)</td></tr>
<tr><td colspan="3">REGISTRAR USE ONLY BELOW THIS LINE</td></tr>
<tr><td colspan="3">Checklist for receipt of other required items</td></tr>
<tr><td colspan="3">○ Authenticated certificate of registration from home country of origin.
○ Copy of the company's charter or equivalent, authenticated by competent authority. In home country of origin.
○ Letter from authorized director or officer of company calling for operation of business in Iraq (see instructions).
○ Financial statements of company for the last fiscal year.
○ (Only necessary if answer to 7c is "yes"– see instructions) Documentation from bank in Iraq of $100,000 deposit.
○ Copy and original of passport or civilian identification card of authorized represent tative for filings with the registrar.</td></tr>
<tr><td colspan="3">Verification information – / hereby declare that this application Is complete and the necessary fee has been paid.</td></tr>
<tr><td colspan="3">Temporary tracking number for application</td></tr>
<tr><td>Registrar official information:
Printed name</td><td>Signature</td><td>Date (DD/MM/YYYY)</td></tr>
</table>

Registration of Branches and Trade Representation Offices by Foreign Companies

<table>
<tr><td>1. Legal name</td><td rowspan="2">7. Will business in Iraq be involved in: Yes / No
a. land ownership?
b. natural resource extraction or initial pro cessing?
c. retail sales?</td></tr>
<tr><td>2. Trade name:</td></tr>
<tr><td>3. Type of business activity:</td><td>8a. Name of agent for service of legal pro cess in home country of establishment:</td></tr>
<tr><td>4. Business address of offices in Iraq (see instructions):
Local address line 1
Local address line 2
City / Governorate / Postal code</td><td>8b. Business address of person named in 8a.:
Local address
City
Province/ State
Postal code / Country</td></tr>
<tr><td>5a. Business telephone in Iraq:
5b. Business facsimile in Iraq:
5c. Business e-mail in Iraq:</td><td>8c. Business telephone of 8a.:
8d. Business facsimile of 8a.:
8e. Business e-mail of 8a:</td></tr>
<tr><td>6a. Name of chief management official in Iraq (must reside in Iraq):</td><td>8f. Name of chief executive officer in home country of establishment:"</td></tr>
<tr><td>6b. Address of person named in 6a. (must be in Iraq):
Local address
City
Governorate / Postal code</td><td rowspan="2">8g. Business address of person named in 8f.:
Local address
City
Province/ State
Postal code
Country</td></tr>
<tr><td>6c. Telephone number of 6a.:</td></tr>
<tr><td>6d. Name of agent for service of legal process In Iraq (must reside in Iraq):</td><td rowspan="2">8h. Business telephone of 8f.:
8i. Business facsimile of 8f.:
8J. Business e-mail of 8f.:</td></tr>
<tr><td rowspan="2">6e. Address of person named in 6d. (must be in Iraq):
Local address
City / Governorate / Postal code</td></tr>
<tr><td>9a. Amount of charter or authorized capital (specify currency):</td></tr>
<tr><td>6f. Telephone number of 6d.:</td><td rowspan="2">9b. Net worth at dose of most recent finan cial period:
Amount (specify currency):
Date of report (DD/MM/YYYY):</td></tr>
<tr><td>6g. Name of authorized representative for filings with the registrar (must reside in Iraq):</td><td>9c. Name and address of owners of 10% or more of company equity:
Name Address</td></tr>
<tr><td>6h. Address of person named in 6g. (must be in Iraq):Local address
City / Governorate /Postal code</td><td rowspan="2"></td></tr>
<tr><td>6i. Telephone number of 6g.:</td></tr>
</table>

MINISTRY OF TRADE MINISTERIAL INSTRUCTION NO. 149 DATED FEBRUARY 29, 2004: ANNEX I

MINISTRY OF TRADE MINISTERIAL INSTRUCTION NO. 149 dated FEBRUARY 29, 2004: ANNEX I

Registration of Branches and Trade Representation Offices by Foreign Companies

Instructions for completion of application form
General Instructions: Brining two (2) copies of this completed form to the registrar at the time of application (one will be retained by the registrar and e second will be returned to the applicant as a receipt of application). This form has enhanced features and can be completed using Adobe Acrobat Reader, after which it can be printed. This is the preferable format for submission. It is also acceptable to complete this form using a typewriter or by hand wim black or blue ink.
Part I – Items pursuant to Section II, Article 2 of Ministerial Instruction No. 149 Dated February 29, 2004. ○ Legal name: the official name of incorporation on record in the home country of establishment. ○ Trade name: the name under which business is conducted and marketing is carried out. ○ Type of business activity: Please provide a brief description of the main activities the branch office will perform. ○ Business address of offices in Iraq: On page one of the application form, list the main office in Iraq. List all other offices, if any, in the Continuation section on page 2. Specify that the information is "Continuation of Item 4." If still more space is needed, attach additional sheets; be sure to label "Continuation of Item 4." If no offices are yet established, write "not yet established." Upon the establishment of the offices, the information must be provided to the registrar within 7 days. ○ This should contain the main telephone number, fax number, and e-mail address in Iraq. If these are not established yet, please indicate so. They will need to be updated at the registrar when established. ○ The chief management official in Iraq is the person selected by the officers of the company to act on behalf of the company in its activities in Iraq. The agent for service of legal process is the person to be notified in the event legal charges have been brought against the business in Iraq. The authorized representative for filings with the registrar (who may be the same as the agent for service of legal process) is the person who will physically deliver the application and future filings to the registrar. All three of these individuals must also be named in letter of Item 3 in the additional documentation required. ○ This question refers to activities that foreigners are prohibited in engaging (items a. and b.) or where additional documentation must be filed (item c.). Please place an X on top of the appropriate line for each of the items. If the answer is "yes" to items a. or b., the company will not be allowed to do business In Iraq. If item c. is answered yes, additional documentation pursuant to the Ministerial Instruction on retail trade must be filed. However, this documentation does not need to be filed at the time of this application. ○ The agent for service of legal process in the home country of establishment is the person to be notified in the event legal charges have been filed against the business in its home country.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r equivalent) is the person who is ultimately in charge of the management decisions of the company. ○ Item a. may or may not apply. If it does not, please indicate "does not apply." For item b., be sure to indicate the date and currency. If more space is needed for part c., please use one of the available boxes in the Continuation section on page 2. ○ Continuation space: Please use this space for the continuation of any of the above items. Be sure to fill in the item number. If still more space is needed, attach additional sheets; label them with the corresponding item numbers. ○ This application is to be signed by the authorized representative for filings with the

registrar, as named in Item 6 of the application and as stipulated in the fetter pursuant to Item 3 in additional documentation below.

Part II – Additional items required pursuant to Section II, Article 3 of Ministerial Instruction No. 149 Dated February 29, 2004.

- The authenticated certificate of registration from home country of origin should be a registration certificate or similar certification prepared by the registrar or similar entity and marked with that entity's official seal.
- The authenticated copy of the charter or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equivalent should be certified by the registrar or similar entity in the home country of establishment and marked with that entity's official seal.
- A letter on the stationery of the applicant company, signed by an authorized officer or director of the company, authorizing the registration of the business entity in Iraq, consenting to service of process in Iraq and identifying the chief management official in Iraq, the agent for service of legal process in Iraq, and the authorized representative for filings with the registrar(all 3 must reside in Iraq).
- This should include the balance sheet and profit and loss (income) statement.
- If the answer to item 7c. above is "yes", a bank statement showing that $100,000 has been deposited in a non-interest bearing account must be submitted to the registrar before actual sales activity may begin. This, however, pursuant to the Ministerial Instruction on retail trade does not need to be submitted at the time of this application, and non-submission will not be grounds for rejection of this application.
- The authorized representative for filings should bring with him at the time of application both the original and a copy for submission of his passport (for a foreign citizen), or a civilian identification card (for an Iraqi citizen).

6. 투자입지여건

가. 개관

이라크는 정정 불안, 치안 불안 등으로 투자 리스크가 아직도 높기 때문에 투자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나, 북부 쿠르드 지역이 비교적 안전하고 이동 시 치안상 문제가 적은 지역이며 최근 건설 붐이 일고 있어 상하수도, 주택건설,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추진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 치하에서는 자유무역지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1980~88년 기간 동안 이란-이라크 전쟁, 1991년 제1차 걸프 전쟁, 이후 12년간의 UN 경제제재 등으로 인해 경제가 몹시 피폐해졌으나 당시 정권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제도를 고수하면서 대외개방을 철저히 외면하였다.

이라크 제조업의 대부분을 200여 국영기업이 담당하였고 민간부문의 역할이 미미했기 때문에 굳이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 또한 GDP의 65%, 외환 수입의 90%를 원유가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로 인해 경쟁력을 보유한 수출상품도 없어 자유 무역지대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다.

'03년 미국과의 전쟁 이후 이라크는 전면적인 대외 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수입 자유화 조치에 따라 자유무역지대의 추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불가리아의 Vassilevi Bros사는 2004.3.14일 이라크 과도 통치위원회(IGC) 및 연합국 임시행정처(CPA)와 요르단 국경지대인 Trebil에 자유무역지대를 추가 건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대

1) 산업단지

이라크 정부의 산업단지 육성정책은 명확하지 않으며, 치안여건 불안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없다. 단, 기존 조성된 산업단지 6개 처에 대한 정상화 노력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부 바스라 인근 움까스르 항에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여 제조 및 물류기지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란-이라크 국경 샤트알아랍 지역에 신도시 및 산업물류단지를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북부 쿠르드 지역에는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없으나, 쿠르드 지방정부에서 투자법을 제정하여 쿠르드 지역의 아르빌 내에 드림시티를 건설하고 건설분야 활성화에 치중하고 있다.

이라크 주요 산업공단 현황

연번	공단 지역	위 치	주요 입주업종 내역	비 고
1	Bub Al-sham	바그다드 북동방향 25 Km	○ 건축자재 ○ Mechanical ○ Feeding, adhesives ○ Plastics products	중규모
2	A'wyreej	바그다드 남동방향 35 Km	○ Textile ○ Plastic & fiber ○ glass products ○ Gas separation ○ plant(industrial and healthy) ○ 자동차부품	국영 공장, 창고 및 워크샵 위주 중규모
3	Al-Nahrawn	바그다드 남서방향 55 Km	○ Bricks factory ○ Light industries	중규모
4	Gurref Al-Nadaf	바그다드 북쪽 30 Km	○ Small Agriculturalequipment ○ Food processing and beverages ○ others	소규모
5	Jamilla	바그다드 동쪽 8 Km	○ Foodstuff & beverages ○ Textile ○ Steel products ○ Construction materials ○ Chemical products	중규모
6	Bab Al Sheeckh	바그다드에서 1 Km	○ Hand crafts and Small work ○ shops ○ Supplementary car industries ○ Plastic products	공해문제로 환경부에서 2003년 초 입주업체들에게 철거 명령을 내린 후 전쟁으로 가동 중단

2) 자유무역지대

이라크는 수출자유지역청법(Free Zone Authority Law)을 1998년에 제정하여 조세법상 특혜를 부여한 자유무역지역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익과 자본 이득에 대한 모든 조세와 수수료를 면제하고, 지역 내 비 이라크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100% 면제하고 이라크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를 면제하고 있다. 지역 내 기업에 대해서는 비 내수용 수출입품에 대해 관세와 기타 조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외국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면 '이스라엘 보이코트(Arab Boycott of Israel)'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Khor Al-Zubair Free Zone
- 이라크 남부 최대 도시인 바스라 인근 40㎞에 위치
- 1,000 ㎢ 규모로 Al-Zubair항의 항만시설 이용, 걸프만의 물류 중심지

○ Ninevah Free Zone
- 이라크 북부지역 모술 북쪽 20㎞에 위치
- 400 ㎢ 규모로 터키, 시리아, 요르단과 남부의 바스라항을 도로와 철도로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

○ Al-Qa'im Free Zone
- 이라크 서북부 시리아와 국경지역 도시로 수도인 바그다드로부터 400㎞ 북서쪽에 위치
- 70 ㎢ 규모

○ Sulaymaniyah Free Zone
-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 소재

이 외에도 바그다드로부터 약 500km, 요르단 수도 암만으로부터 약 400km 떨어진 국경 지방인 서부 Trebil은 이라크 수입상품의 약 40%가 Trebil 세관을 통과할 정도로 물류 흐름이 많은 곳으로서 Vassilevi Bros사는 약 45,000m 의 면적에 2004. 6월부터 10년간 자 유무역지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7. 노무관리

가. 개관

전쟁 이후 약 30~40%에 달하는 실업률로 취업기회가 줄어들어 비숙련 노동력은 풍부한 실정이다. 이렇다 할 교육이나 경험을 갖고 있지 않는 단순 노동력의 월 평균 임금은 미화 150~200달러 수준이다.

사무직의 경우 능력에 따라 미화 월 400~2,000달러를, 비서직의 경우 미화 400달러 상당을 지불해야 채용할 수 있다.

이라크 근로자는 중동국가 근로자에 비해 직무에 대한 충성도와 열의는 높은 편이며 업무를 파악하는 속도 또한 빠른 편이다. 즉, 다른 중동국가에 비해 양질의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다.

전후 이라크인들의 외국인회사 근무 기피 현상이 생겨났는데, 이는 저항세력이 전후 복구에 참가하는 기업, 특히 외국계 회사에 고용되어 있거나, 외국계 회사와 합작으로 전후 복구에 참가하는 기업의 직원에 대한 납치, 테러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은 높아도 외국인 회사에 근무하려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다.

이라크의 국내 치안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숙련 노동력의 해외 이탈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의사, 교수 등 고학력 인력, 특히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인력은 납치 및 테러 등의 위험으로 해외 이탈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수도인 바그다드의 주요 병원은 전문의 부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갈수록 낮아져 보건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중요한 수술일 경우에는 아르빌 등 치안이 안정된 지방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는 경우도 있다.

나. 퇴직금

퇴직금 관련 법적 규정은 없다.

다. 노동 조건

1) 노동 시간

이라크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며, 초과근무는 1일 최대 4시간 이내이다.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은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통상 시간당 임금의 최대 200%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다.

2) 휴가

유급 휴가는 최대 연간 30일이나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 휴가로 유급 1년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3) 기타

근로자는 상여금으로 회사에 따라 1만~1만5,000 디나르를 매년 지급 받으며, 단결권이 인정되어 주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다.

라. 사회보장제도

2003년 전쟁 이후 사회보험법이 제정되어 종업원 당 급여의 17%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보험료 중 5%는 종업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12%는 산업 연합(Industry Union)에서 부담한다.

종업원은 퇴직 시 근무연한에 비례하여 정해진 금액을 지급 받으며, 최저 지급액은 12만 5,000디나르이다.

8. 조세제도

전후 연합국 임시행정처 치하에서 CPA 명령 49호에 의거 2004.2.19일자로 종전 소득세법(Law No.57, 2001년)이 개정되었다.

전쟁 직후 행정력 붕괴로 인해 한시적 조치로 2003.4.16~2004.3.13일까지 소득세 징수를 면제하였다. 행정력이 복원되면서 2005.4월부터는 공무원 및 국영기업 임직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다.

가. 개인 소득세

이라크 정부는 개인별로 해당 기초 공제액을 공제한 소득액에 3~15%의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 기초 공제액

개정 전/후 기초 공제액 비교

구 분	Law No.57(2001)하 공제액(I.D.)	CPA Order 49(2004)하 공제액(I.D.)
본인	600,000.00	2,500,000.00
배우자	400,000.00	2,000,000.00
자녀	100,000.00	200,000.00
미망인/이혼자	1,000,000.00	3,200,000.00
고령자	150,000.00	300,000.00

2) 거주자 및 비거주자 소득세율

개정 전/후 소득세율 비교

종전		2004년
거주인	비거주인	
10% to 250,000.000 I.D.	15% 250,000.000 I.D.	3% to 250,000.00 I.D.
20% over amount of 250,000.000 I.D. to 1,000,000.00 I.D.	25% over amount of 250,000.000 I.D. to 1,000,000.00 I.D.	5% For over amount of 250,000.00 to 500,000.00 I.D.
30% over amount of 1,000,000.00 I.D. to 2,000,000.00 I.D.	35% over amount of 1,000,000.00 I.D. to 2,000,000.00 I.D.	10% For over amount of 500,000.00 I.D. to 1,000,000.00 I.D.
40% to over 2,000,000.00 I.D.	45% to over 2,000,000.00 I.D.	15% For over amount of 1,000,000.00 I.D.

나. 법인 소득세

이라크는 회사 유형에 따라 혹은 내·외국인 법인이냐에 따라 법인 소득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 ○ 외국회사의 이라크 현지 법인: 15%
- ○ 이라크 유한회사: 25%
- ○ 이라크 주식회사: 15~35%
  - 영업 이익 I. D. 1,500,000.00 까지는 15% 적용
  - 영업 이익 I.D. 1,500,000.00 에서 I.D. 3,000,000.00 까지는 25% 적용
  - 영업 이익 I. D. 3,000,000.00 이상일 경우 35% 적용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이라크는 달러 연동 변동 환율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미국과의 전쟁 이후 무역부문 전면 자유화를 도입하면서 외환시장에 대한 규제도 철폐하여 변동 환율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2003. 8월 말 이라크 중앙은행이 업무를 재개하여, 시중은행이 참가하는 경매를 통해 대미 환율을 정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의 물가 억제책의 일환으로 이라크 디나르화의 평가 절상을 지속 추진해 옴에 따라 '06년 11월 이후 달러화는 약세를 유지해 '08년 5월 말 기준 1,198 디나르까지 하락하였다.

달러화 등 외환거래는 완전히 자유화되어 이라크 내 외환 소지 및 거래, 송금, 입금이 자유화되어 있다. 달러화 환전도 시중 환전소에서 쉽게 할 수 있다.

Ⅴ.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개관

1 인당 국민소득 1,000 달러 대의 저소득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인지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70 년대 말까지 이라크가 중동의 산유부국이었기 때문에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고급 제품에 대한 향수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1 인당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떨어진 지난 20 년간 정부의 수입 통제로 인해 외부와 단절되어 과거 유명 브랜드에 대한 향수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취향을 겨냥, 유명 브랜드 재고품이나 모조품도 대거 유통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력이 미흡하여 모조품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과의 전쟁 이후 소비자들의 급격한 구매력 저하로 저가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나 품질 수준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라크 소비자들은 품질에 대해 매우 까다로운 생각을 지니고 있으며, 대체로 품질의 차이에 따른 가격차를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그 결과 저가 중국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만족지수는 그리 높지 않으며, 한국산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편이다.

생활용품의 경우 대체로 개당 100 달러 미만의 제품은 가격을 더 따지나 100 달러 이상인 제품은 품질이 더 중요한 구매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전제품은 500 달러를 기준으로 자동차와 같은 내구성 제품은 5,000 달러를 기준으로 가격과 품질의 선호도가 바뀌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이라크인의 일반적인 소비성향은 '유명 브랜드 저가모델'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 중인 가전제품의 경우 대체로 '브랜드는 고급'이나 제품은 선진국에서 한물간 구형 모델이거나 단가 절감을 위해 제 3 국 에서 조립한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후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는 있으나 치안 및 정정 불안으로 대형 바이어들은 가급적 재고부담이 많거나 Capitalization 이 많은 분야를 꺼리고 가능하면 회전이 빠르고 단기 현금 화가 가능한 분야에 치중하는 편이다. 즉, 중고차, 가전제품, 식품 등 현금 장사에 치중하는 편이다.

우리나라의 대 이라크 시장 유망 수출품은 '03 년 전쟁 이후 급증한 중고차 수출을 바탕으로 '05 년 중고차 연식제한으로 중고차 수출이 위축되면서 신차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승용차와 화물자동차이다. 또한, 기 수입된 중고차의 부품 교체 수요에 따라 자동차 부품의 수출도 유망하다.

최근 이라크 내 무선 인터넷망 확대로 개인 컴퓨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조립 PC 시장이 완제품 PC 시장으로 전환될 경우 개인 컴퓨터도 수출 유망 품목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발전기는 전쟁 이후 이라크의 전력사정이 전쟁 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어 개별 발전기 수요가 상당한 수준이다. 이라크 소비자의 구매력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우선시되는 시장이었으나 내구재로서 품질 경쟁력도 중요해지면서 한국산 발전기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TV, 에어컨, 냉장고 등의 수입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라크 소비자들의 호평 속에 한국산 가 전 제품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시장 내 성가를 바탕으로 유망 수출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쿠르드 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서는 치안 불안으로 재건 프로젝트의 진척이 더뎠으나 '08 년부터 지방정부 중심의 재건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경우 건설중장비 시장이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산 건설중장비도 수출이 유망하다.

무선 전화기도 수출 유망품목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라크 통신망이 무선 통신망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치안 불안으로 소비자들의 무선 전화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어, 한국산 무선 전화기의 수출은 유망하다.

공장, 호텔건설 등 회수기간이 길어 자금이 오랫동안 묶이는 투자는 합법적인 정부가 들어서고 치안이 좀 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기대할 수 있으며, 주요 투자자들은 해외 거주 이라크인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460 만 명의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은 이라크 영토이면서도 여타 이라크 영토와는 판이한 시장이다. 자치지역의 주요도시인 아르빌, 도훅, 술레이마니아 등지에서는 아랍어로 된 도로표지판이나 간판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며 쿠르드족 고유의 쿠르드어를 사용하고 있어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유사 이래 한 번도 독립 통합국가를 창설해 본 적이 없는 쿠르드족은 이라크 영토 이외에도 터키, 시리아, 이란 등 4 개국에 걸쳐서 약 25 백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 1 차 걸프전 이후 UN 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계기로 쿠르드 자치지역은 바그다드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준자치적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런 쿠르드 시장을 놓고 터키계와 이라크계가 경쟁관계에 있으며, 이라크 쿠르드 상인을 통하면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뿐 아니라 사실상 터키, 시리아, 이란 일부 지역에까지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라크 내 딜러십 체제를 구축할 때 이라크의 아랍계 지역과 쿠르드 지역을 분리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한 시장개척 방안 중의 하나이다.

한편 쿠르드 지역으로 공급되는 제품은 대체로 시리아 타르투스 항구나 터키 메르신 항구를 이용하는 편이 운임과 딜리버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03 년 전쟁 직후에는 원산지 수출상보다는 딜리버리 기간이 짧고 대금 수수가 용이한 두바이, 요르단, 쿠웨이트 등 인근지 중개상을 통한 수입 비중이 절대적이었으나, 그 후 수입업자들 간에 점차 경쟁이 가열되면서 중개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직수입을 선호하는 수입상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민족감정까지 겹쳐서 요르단, 쿠웨이트 중개상을 통한 수입을 매우 꺼리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수입상들의 직수입 선호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부족하고 재고를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액주문을 외상으로 받아주면서 딜리버리 기간도 비교적 짧다는 이유로 여전히 두바이, 요르단, 터키 및 시리아 상인을 통한 중개무역이 현재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즘 이라크로 수입되는 상품들은 독점 딜러만이 아니라 자금능력, 판로를 갖추고 있는 수입상이라면 누구나 수입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후세인 정권 붕괴 후 수입 면허가 불필요한데다 제조업체나 수출업체는 아직 이라크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딜러십 체제를 구축하기보다는 단기적 시장진출 전략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바이어들 모두를 가리지 않고 물건을 공급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라크 내 치안이 확립되고 상거래 질서가 안정되면 딜러십 체제가 정착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특히 A/S 가 필요한 품목은 조만간 딜러십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다.

□ 바그다드 지역 주요 상권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지역의 주요 상권은 다음과 같다.

○ 아라사트
- 서울로 비교하자면 청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고급 상점들이 형성되어 있음.
- 아라사트와 사둔거리가 만나는 도로에는 LG, 삼성, 파나소닉 등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이 늘어서 있음.

○ 카라다 아웃
- 전자제품 위주의 상가가 횡으로 길게 뻗어 있음. TV, 냉장고, 에어컨, 위성 수신기기 등 60% 이상의 간판이 국내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음.
- 와르다 슈퍼마켓(바그다드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마켓)에서는 돼지고기, 각종 생선 구입 가능

○ 카라다 인
- 대단히 번화한 거리중의 하나로 서울에 비유하면 명동에 해당험. 옷가게, 카페, 음식점, 노점상 등이 고루 분포

○ 샤라 사둔(사둔 스트리트)
- 팔레스틴 호텔과 쉐라톤 호텔을 지나서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안경점, 가방점 등 여러 상점들이 늘어서 있음.
- 샤라 사둔의 북쪽 끝에는 서울의 청계천 상가처럼 상권이 형성 되어 있음.
- 각종 소규모 전자제품 및 위성기기, 컴퓨터 업체를 찾아볼 수 있음.

○ 샤라 쇼르자 및 라시드
- 이곳에는 직물 가게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으며, 각종 잡제품을 파는 전통시장이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함. 일반 통행로여서 이곳을 방문할 때에는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고 발품을 파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05 년 초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복구하는 데 다소 시일 소요 전망

○ 세이크 오말
- 이곳에서는 중장비 및 부품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건축용 자재 상점도 많은 편임.
- 특히 자동차 부품 중 일제차와 미제차, 독일제차 부품 상점이 많음.

○ 무잠마 알무신
- 자동차 타이어, 배터리 상점이 많이 형성 되어 있으며 일부 상점은 부품도 취급. 카센터도 많음.

○ 시바하: 자동차 부품상점이 많이 형성 되어 있음.

○ 나흐다, 베이다: 중고차 시장

○ 만수르
- 티그리스 강 건너 지역으로 고급 상점들과 TV, 냉장고, 에어컨, 위성기기 등을 취급하는 전자제품 상점 등이 주로 형성되어 있음.

2. 물가정보

항 목	기준품목	금액(USD)	품목 내역
식 품 기호품	김치찌개	한식당 없음	1인분
	햄버거	맥도날드 미 진출	맥도날드 빅맥 1개
	수입담배	1	말보로 라이트 1갑, 20개피
	소고기	7.50	1kg
	양고기	6.25	1kg
	쌀	5.21	5kg
	밀가루	1.04	1kg
	설탕	1.25	1kg
	달걀	5.00	30 개
	생수	0.5	1.5l
주 택 사무실	고급아파트 월 임차료	2,500	150m2/월, Semi-furnished
	중급아파트 월 임차료	1,000	150m2/월, Semi-furnished
	사무실 임차료	800~3,000	150m2/월
교 통 차 량	자동차 2000cc	20,000~25,000	한국산
	시내버스 요금	0.89	1구간
	택시요금	1~2	기본요금
	택시요금	0.3	추가요금, Km당
통 신 전 기	공중전화요금	서비스 미 개시	시내, 3분
	국제전화(할인)	0.9	현지-서울, 3분
	전기요금	-	가정용, 1Kwh
	인터넷 사용료	200~1,200/128kb	1개월 기본료
교 육	현지 사립학교 수업료	없음	초등 1년간
	외국인 학교 수업료	없음	초등 1년간, American School
레 저 오 락	골프장 그린피	골프장 없음	비회원, 18홀 1라운드
	영화 관람료	1	최신영화, 주중 저녁요금
의 료	병원진료비	3~4	의료보험 제외, 몸살감기, 내과 초진
호 텔	특급호텔 숙박료	90~120	할인, 싱글 1박
	중급호텔 숙박료	40~60	할인, 싱글 1박
임 금	비서 월 급여	250~350	초임, 학력 불문
	사무직원 월 급여	300~1,000	대졸, 초임
생필품	Y셔츠	25	100% 면 셔츠
	양말	2.92	면 양말 1켤레
	스타킹	2.50	
	청바지	29.17	
	넥타이	12.50	니나리찌 100% 실크제품
	칫솔	2~3	
	치약	2.92	125g
	티슈	1	150매
	비누	2~3	

주: 무역관 직원 실사(기준일 2008년 5월15일)

3. 바이어 발굴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이라크 유력 수입상들은 테러, 납치를 피해 대부분 두바이와 암만으로 피신해 있으며 이라크 내에는 최소 직원만 유지하고 있다. 상공회의소, 비즈니스맨 연합 등 유관단체가 있기는 하나 바이어 리스트를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현지에서 발간되는 디렉터리, 옐로 페이지는 신뢰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Compass등 디렉터리를 통해 바이어의 소재 여부를 일일이 유선으로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2003년 전쟁 이후 신변 불안으로 이라크의 유력 바이어들이 인근국으로 피신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국 시장을 통해 이라크 시장을 우회 개척하는 것도 좋은 방편 이다. 특히 치안불안으로 현재 우리 기업인들의 이라크 입국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바이, 요르단, 쿠웨이트 등지를 거점으로 삼고 있는 이라크 유력 바이어들과 상담을 통해 이라크 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겠다.

또한 인근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를 활용하여 이라크 바이어를 발굴할 수도 있겠다. 요르단에서 매년 개최되는 이라크 재건박람회(REBUILD IRAQ) 등 이라크 재건을 위한 여러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이라크 바이어와 상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06년부터 치안이 안정된 쿠르드 지역에서는 Sulaimany International EXPO(매년 9월) 등 국제 전시회를 개최하여 외국기업의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라크인들은 모두 구매력이 약하다'라는 단일 잣대로 요르단 등 인근지 조립품이나 중저가형 모델 위주로 공급하기보다는 '한국제품'을 '일본제품'의 대체품으로 간주하고 있는 고소득 층을 겨냥한 'Made in Korea'의 프리미엄 제품을 공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전쟁 직후 세관 행정이 미비되고 혼란한 틈을 타 인근국 중개무역 상인들이 주도권을 장악했었으나 최근 직교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라크 내에서 거세게 일고 있으며, 수입 경쟁이 치열하면 할수록 직교역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이라크에서는 신뢰할 만한 소스가 없지만, 이라크업체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 Baghdad Bazaar: www.baghdadbazaar.com
- Iraqi Directory: www.iraqdirectory.com
- Iraqi Ministry of Trade Business Center: www.motiraq.org/home.aspx
- 유료 사이트인 www.noozz.com는 뉴스제공 사이트이나 일부 활용이 가능함.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상담 시 금기사항

이라크는 '03년 미국과 전쟁 후 이슬람 종파 간 갈등이 새롭게 증폭되었기 때문에 바이어에게 소속 이슬람 종파(수니파, 시아파)를 묻는 것은 금기사항 중 하나이다.

또한 이름만으로도 소속 종파를 알 수 있어, 납치가 기승을 부리고 테러 위험이 높아지면서 경찰이나 타인에게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꺼리며, 모르는 사람과는 명함도 교환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인과 상담할 때는 쿠르드 독립과 관련된 이야기는 자제해야 한다. 쿠르드족은 전체 인구의 약 17%인 400만 명이 이라크에 살고 있으며 사담 후세인 정권까지 쿠르드 독립정부를 갖지 못했으나, 전쟁 이후에는 쿠르드 지역(수도: 아르빌)에 자치정부에 준하는 정부조직(대통령, 총리 및 정부부처)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터키, 이란 등 주변국들은 이라크 내 쿠르드족의 독립 시 자국 내 쿠르드족의 독립운동으로 확산되어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쿠르드 지방정부의 독립을 적극 반대하고 있어 쿠르드 족의 독립은 가장 예민한 사항 중 하나로 쿠르드족 독립과 관련한 언급은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바이어와 친한 사이가 아니면 사담 후세인 등 종전 후의 민감한 정치적 화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상대방의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잘 알지 못할 경우 사담 후세인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질문은 매우 예민한 사항이므로 가급적 피해야 하겠다.

이슬람 문화권에 공통된 사항으로 처음 만나는 여성에게 악수를 청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통상 개방적이지 않은 히잡을 쓰고 있는 무슬림 여성에게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자신을 소개해야 하며, 악수를 하거나 신체적 접촉은 금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나. 비즈니스 에티켓

바이어와 상담 시 웃는 얼굴로 친근감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아주 간단한 에티켓으로 보이나 감정적이고 단순한 대륙기질의 이라크인들은 첫인상을 중요시하며, 신경질적 이거나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을 싫어하고, 관대하고 편한 느낌을 주는 사람을 선호하므로 항상 웃는 얼굴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화할 때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유리한 상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상대방과 대화 시 호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면서 고개를 상하로 약간 흔들어 긍정의 의사를 적절히 표시함이 좋다.

이라크에서도 다른 이슬람 문화권과 같이 개인적 또는 업무적으로도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 관리들과 친분을 쌓는 데는 간단한 선물이 때때로 좋은 성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전쟁 이후 뇌물도 성행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직접 뇌물을 제공하는 것은 비즈니스를 망칠 수도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하겠다.

바이어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언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라크인은 과거 중동의 석유부국으로 풍족하게 살던 옛 시절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으며, 자국의 경제적 잠재력과 문화수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따라서 종종 대화 중에 인근 중동국가와 비교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은 삼가야 하겠다.

이라크인도 다른 이슬람 국가와 같이 손님 접대를 즐기며, 첫 대면인데도 점심이나 저녁을 초대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 경우 바이어의 호의를 가급적 거절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바이어의 집으로 초대받았을 때는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일정 시간이 흐른 후 답례 형식의 초대를 하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바람직하다. 초대

를 받거나 상대방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음료(차)가 제공되면 적어도 한 잔 정도는 마시는 게 좋으며, 왼손은 불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실 때는 오른손만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상대방에게 신발바닥을 보이도록 앉는 것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상담 시 언어는 영어가 사용되는데 과거 오랫동안 영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관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공무원이나 비즈니스맨들은 모두 영어에 능통하며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나 관습에 관심이 있음을 알리고, 아랍어로 몇 마디 이야기할 수 있으면 심리적인 호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북부 이라크의 쿠르드계는 쿠르드어와 쿠르드 국기를 사용하는 등 준 독립국가로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어 어설픈 아랍어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다. 상담 시 유의사항

중동지역 공통으로 직접 대면접촉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비즈니스 성공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특히 이라크인들은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여, 정기적으로 상대방을 방문하여 친분을 쌓아두는 것이 비즈니스에 유리하다.

현재 이라크는 국내 전화 사정이 좋지 않아 통화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선약 없이 찾아가도 결례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반기는 편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면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부처나 국영기업의 프로토콜(의전) 파트를 접촉해 사전약속을 해야 한다.

이라크 바이어들은 약속시간에 대한 관념이 다소 불분명하다. 약속시간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정착되어 있지 않으며, 약속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따지거나 화를 낼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라크 전쟁 후 미군에 의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거나 전후 중고차 대량 반입으로 교통 정체가 많아 약속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라크 바이어들과 상담할 때는 상당한 인내심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상담을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적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기 위해 대화를 중단하는 일이 흔하고, 상담 시 제기된 문제나 상대방 의도를 파악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조급한 모습을 보였다가는 불손한 태도로 간주 받아 상담을 망칠 우려가 있으므로 항상 인내심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쌍방 간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라크 바이어들은 거래선 물색 시 자본력보다는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지를 가장 우선시한다.

전쟁 이후 이라크 시장은 우리 기업인들의 접근이 제한되어 생생한 시장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시장수요에 적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라크 현지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라.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바이어와 상담이 잘 진행되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신용장(L/C AT SIGHT)에 의한 대금결제를 원칙으로 삼고 DP 또는 DA 등에 의한 외상거래는 가급적 삼가는 게 좋다.

이라크 바이어들은 유럽 기업들과 오랫동안 거래해 오면서 외상 및 연불거래에 익숙하여 처음 거래관계를 맺는 경우에도 유산스 등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결제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상대방과 충분한 신뢰관계를 쌓기 전에는 신용장 거래방식을 채택해야 안전하다.

신용장 거래 시 L/C 개설은 두바이나 암만 등 신용 있는 외국은행에서 개설된 신용장을 선호하는 것이 좋다. 현재 이라크 은행이 신용장을 발급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신뢰도가 확립될 때까지는 인근국의 은행을 통해 개설된 신용장에 의해 거래함이 비교적 안전하다.

이라크 바이어에게 독점 에이전트 십을 부여할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바이어의 마케팅 능력을 검증한 이후 독점 에이전트를 지정해야 하나 통상 바이어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고 자신에게 독점 에이전트권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시장 지배력, 마케팅 네트워크와 판매능력을 중심으로 거래 바이어를 선별함이 요망된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무역 관련 애로사항

'03년 전쟁 이후 연합국 임시행정처 주도로 이라크 경제는 자유 시장경제체제로 전면 전환 중이며, 수입관세도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5%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시장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종파 간 분쟁, 테러세력의 준동 등으로 치안이 극도로 불안하여 시장 접근에 어려움이 많으며, 보안 경비가 추가되는 등 무역 여건이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법규의 집행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별도의 기관도 아직 없어 상사 분쟁 시 변호사를 선임해 통상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해결하고 있다. 주요 분쟁사례는 제품하자 및 대금 납부 후 미 선적이며 계약 시 분쟁조항을 반드시 삽입하여 중재자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미흡하여 한국산 가전제품 등 유명 브랜드 제품에 대해 중국산 위조상품이 이라크 내에 많이 수입, 판매되고 있으며, 이의 시정을 위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클레임을 제기하고 품질관리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나 이라크 정부의 행정력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나. 투자 관련 애로사항

이라크는 투자부문에서도 개방정책을 채택하여 '06년 12월 새로운 투자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도모하고 있으나 아직 투자관련 하위법규가 정비되지 않았으며, 관련 지원기관도 구성되지 않아 투자유치환경이 미흡한 수준이다. 게다가 이라크의 치안 불안으로 외국 투자가의 신변 위협이 크고, 정정이 불안하여 투자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고 있다.

6. 이주정착 가이드

이라크는 현재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이며, 특히 저항세력의 공격을 미군 및 이라크 정부군이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여 외국인의 안전이 매우 위협받고 있어 외국인이 이라크에 이주하여 정착하는 것은 위험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라크의 치안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우리 기업인의 이라크 입국을 제한하고 있어 자이툰 부대가 위치한 쿠르드 지역 아르빌 등 일부를 제외한 지역에는 우리 지상사가 전무하다.

현재 바그다드에는 대사관, KOTRA, KOICA 등 3개 기관만이 주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라크 내 치안사정이 개선될 때까지는 한국인의 이주정착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7. 출장가이드

가. 기후

이라크 북부 고산지대 및 남부 걸프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라크는 전형적인 대륙성 사막 기후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중동국가 가운데 가장 더운 국가 중 하나이다.

바그다드 지역의 경우 5월부터 10월까지는 몹시 덥고, 건조하며 구름 한 점 없는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동 기간 중 기온은 섭씨 31~50도에 달한다. 그러나 남부 바스라 지역은 걸프만에 연하여 습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한편 겨울철에는 기온이 크게 낮아져서 가장 높은 지역이 최고 섭씨 17도에 불과하며, 바그다드의 경우 아침 저녁으로는 한기를 느낄 정도로 춥다.

이라크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우기이나 강우량은 많지 않다. 전국적으로 연 평균 강우량은 100~170mm에 불과하나 이라크 북쪽 고원지대는 760~1,000mm의 비교적 많은 강우량을 보이고 있다. 최 북부 고원지대에는 겨울철에 눈이 쌓이기도 한다.

여름철에는 2종류의 바람이 부는데 첫 번째는 '샤르키'라고 불리는 남풍 및 남동풍으로 시속 80km의 강풍을 동반한 먼지 바람이다. 주로 4월부터 6월 초까지 불며 9월 하순에서 11월에 걸쳐 한 차례 더 부는 편이다. 바그다드의 경우 한 달 동안 평균 5~6차례 먼지 폭풍이 부는 편이다. 두 번째 바람은 '샤말'이라고 불리며 북풍 및 북동풍으로 미풍 수준이며 여름철 무더위를 잠시나마 식혀 준다.

나. 시차/근무시간

1)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 -6시간으로 한국이 자정(24:00)일 때 이라크는 오후6시 (18:00)이다. 하계기간(4~9월)에는 '07년까지 서머 타임제가 실시되었으나, '08년부터는 서머 타임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2) 근무시간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모두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며 금요일과 토요일은 휴일이다.

관공서, 국영기업, 은행 등 공공기관은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근무시간은 08:30~14:30이며, 목요일은 08:00~12:00이다.

민간기업은 09:00~16:00까지 근무하며, 일반 상점은 10:00~17:00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KOTRA 무역관은 주 5일(일요일~목요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08:30~16:30이다.

그러나 이라크는 치안이 불안하여 상가의 개점시간과 회사의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으며, 일부 회사의 경우 신변 안전을 위해 재택근무를 하기도 한다.

다. 도량형

미터제(metric system)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일부 지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통적인 도량형을 사용하기도 한다.

- 1 dhirraa (Baghdad) = 74.5 cm
- 1 dhirraa(mosul) = 70 cm
- 1 feddan = 5hd = 12.36 acres
- 1 mann = 6 hogga = 24 okiya = 25kg
- 1 tughar = 20 wazna = 80 mann = 2 tonnes

라. 출입국/비자

1) 출입국 비자

한국인의 이라크 입국은 신변 안전을 이유로 '04년 이후 엄격히 제한되어 예외적으로만 선별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그러다 '06년 8월 이후부터 암만 주재 진출기업 중 이라크 담당 지상사들은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에 한해 외교부 경유 NSC 승인을 득하여 단기 방문을 제한적으로 허용 받아 왔으며, '07년 2월 이후부터는 여권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하여 일정기간 내의 복수 입국 허용 및 동일 사안 추가 입국 허용 등을 진출 허용 시 명시하여 기업 진출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07년 아프가니스탄 납치사건을 계기로 이라크에 대한 한국인의 입국을 보다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한편 이라크인의 한국 입국비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허가를 얻어 주 이라크 한국 대사관이 발급하고 있으며 통상 3주 정도 소요된다.

□ 비자발급이 가능한 이라크 재외공관(9개)

전 재외 이라크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아니며 터키(앙카라), 이란(테헤란), 요르단(암만), 시리아(다마스커스), 레바논(베이루트), 이집트(카이로), UAE(아부다비), 바레인(마나마), 프랑스(파리) 공관에서만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 비자 발급 기준

이라크 입국비자는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 공식대표단, 일반여권 소지자이지만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 계약자(contractor) 등에 한해 발급되며,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주 계약업체(Main contractor)가 제3국인을 고용할 경우, 주 이라크 한국대사관에서 해당 제3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를 이라크 내무부와 외교부에 요청해야 한다.

□ 신분별 비자 획득 절차

○ 기업인: 이라크 공식 정부기관의 초청장 소지자: 동 초청장을 첨부하여 상기 9개의 비자 발급 공관에 신청
- 초청장이 없는 경우
・한국 외교부 및 상공회의소의 기업인 신분확인서: 비자 발급을 해주는 이라크 공관이 있는 국가 주재 한국대사관이 상기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이라크 대사관에 비자 발급을 요청하는 공한을 제출

○ 언론인
- 이라크 공식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초청장 소지자
- 초청 정부기관, 이라크 외교부에 동인에 대한 비자발급 승인요청(입국시기 및 9개 이라크 대사관 중 어떤 대사관에 비자 신청할 것인지 명시)
- 이라크 외교부, 동 요청 검토 후 비자발급 여부를 해당 이라크 재외공관에 통보
- 피초청자: 해당 공관에서 비자 획득
- 초청장 없을 경우
・언론인 소속기관 명의의 비자발급 요청서한을 첨부하여 9개국 중의 해당 이라크 대사관 또는 주 이라크한국대사관, 이라크 주재 한국언론지사 등을 통해 비자 신청
・이라크 외교부 공보국(Press Department), 비자발급 승인여부 최종 결정. 동 결정을 이라크 해당 재외공관, 주 이라크 대사관, 이라크 주재 한국언론지사 등에 통보. 해당 이라크 공관에서 비자 발급

○ 이외 일반여권 소지자
- 이라크 공식 정부기관의 초청장 소지자
・초청 정부기관, 이라크 외교부에 동인에 대한 비자발급 승인요청(입국시기 및 9개국 중의 이라크 해당 대사관중 어떤 대사관에 비자 신청할 것인지 명시)
・외교부, 동 요청 검토 후 비자 발급 여부를 해당 재외공관에 통보
・피 초청자, 해당 공관에서 비자획득 이외 이라크 방문 불가
- 이라크 현 상황을 고려, 주재국 외교부는 당분간 공식 초청장이 없는 일반인은 입국을 불허하겠다 함. (비자신청 자체도 불가)

2) 출입국 방법

□ 항구를 통한 입국

이라크 내 국제 항구는 움카스르 및 바스라 두 곳으로서 [두바이-움카스르] 구간에 고속 페리선이 운행 중이나 [바스라-바그다드] 육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절대 삼가야 한다.

□ 항공편 입국 시

암만, 다마스커스, 테헤란 또는 두바이에서 이라크 항공(Iraqi Airway), 요르단 항공(Royal Jordan Air) 또는 전세기(Jupitor 등)를 이용하여 입국 가능하며, 외국인은 이라크 입국 비자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한편, 바스라, 아르빌 등을 방문할 경우에는 바그다드 공항서 국내선으로 환승하여 목적지로 이동 가능하나 출발시간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라크에 취항 중인 민간 상업항공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트 거점	이라크 서비스지역	수송 내용
SkyLink	쿠웨이트	바그다드 및 주요도시	- 승객, 일부 화물 - 기종: AN-12기
Airserve Internat- ional	암 만	바그다드	- 승객, 일부 화물 - 거의 매일 운행 - 기종: Beech 1300
DHL	전세계로부터 바레인허브 경유	바그다드, 모술, 키르쿠크, 알 아사드, 알 타카둠	- 화물 전용 - 거의 매일 운행 - 기종: 화물종류에 따라 다양
Heston/SAFAIR	암 만	바그다드, 모술, 키르쿡, 티크리트, 발라드, 타이지, 아르빌	- 승객, 화물 - 기종: C-130
Royal Jordanian	암 만	바그다드	- 승객 전용 - 일일 1-2회 운행 - 보잉 737, 또는 포커 기종
Iraqi Airways	바그다드	바그다드, 아르빌, 바스라	- 승객, 일부 화물 - 암만, 다마스커스, 두바이, 테헤란, 카이로 등 운행 - 기종: 보잉 737
DFS Middle East	두바이	바그다드	- 화물 전용 - 주 3회 운행 - 기종: AN-12기
민간 전세기	두바이	바그다드	- 승객 전용 - 두바이 제2 터미널 - 주 3회(일,수,금)운영

주: 2008년 기준

□ 육로 입국 시

항공편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으며, 현지인들만 육로를 이용하고 있다. 육로를 통한 입국 루트는 북부의 경우 터키 이브라힘 알 칼릴(Ibrahim al-Khalil), 중부지역에서는 사우디 아르-아르(Ar-Ar), 요르단 트리빌(Tribil), 시리아 등, 남부에서는 쿠웨이트 사프완(Safwan) 등이 있으나 치안 관계로 [이스탄불-디야르바키르-아르빌] 루트만 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터키를 경유해 이라크 북부지역으로 입국하는 방법은 터키 이스탄불이나 수도 앙카라에 도착한 후 터키 국내선을 이용하여 터키 남동부 디야르 바키르(Diyarbakir)에 도착하여, 버스로 갈아타고 입국하는 경로로 이라크 국경까지 약 4시간 소요된다. 국경에서 쿠르드 지방정부의 수도인 아르빌까지는 약 2시간이 소요된다.

이라크 서부 고속도로(암만, 다마스커스 기점)를 이용하여 바그다드로 입국 시 저항 세력은 물론 노상 무장 강도, 절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05. 4월 이후 외국인은 이용을 절대 삼가야 한다.

마. 환전

이라크의 공식 통화는 디나르(Dinar)이며, 약어로는 통상 ID(Iraqi Dinar)로 칭하고 있다.

이라크는 변동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달러화 교환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Money Exchange라고 쓰여 있는 시중 환전소에서 쉽게 은행 환율과 차이 없이 환전이 가능하다.

한편 현지 상점이나 식당 등에서는 현지화뿐만 아니라 달러 표시 가격도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달러화도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고액의 현지화를 교환할 필요는 없지만, 시중에서 물건 구입 시에는 가급적 디나르화로 환전하여 지불하는 것이 유리하다.

'08년 5월 말 기준 대미 환율은 1달러= ID 1,198 이며, '06년 말 이후 이라크화의 평가절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이라크에서 신용카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호텔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단지 추정되고 있다.

바. 교통/통신

1) 교통

□ 한국과의 교통

'07년 6월 기준, 한-이라크 직항 편은 운행되지 않고 있으며 두바이, 암만 등을 경유하여 입국이 가능하다. 바그다드 국제공항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국제 항공편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바그다드-다마스커스], [바그다드-암만], [바그다드-두바이], [바그다드-카이로], [바그다드-테헤란] 등 중동노선이 운행 중이며, 바그다드와 주요 유럽 도시간 취항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천공항을 출발할 경우 두바이 또는 암만을 경유하여 이라크로 입국하는 방안이 가장 일반적인 입국 방법이다.

한편 자이툰 부대가 주둔 중인 아르빌의 경우 외교관 여권 소지자나 NGOs, 승인 받은 기업인에 한해 바그다드에 도착하여 국내선으로 환승하여 아르빌 공항에 도착하거나, 터키 이스탄불이나 앙카라에 도착한 후 국내선으로 환승하여 디야르 바키르까지 이동한 뒤 승용차 편으로 아르빌까지 이동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암만-바그다드간 육로 이동은 이라크의 치안 상황 악화로 자국인만 일부 이용하고 있을 뿐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루트이므로 외국인의 경우 이라크 내 육로 이동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 국내 교통

이라크 내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정확한 지명을 알고 있거나 아랍어로 되어 있는 메모가 있는 경우에는 택시 이용이 가능하나 택시 운전사와 납치세력 간의 연계가 있는 경우도 있어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노란 택시는 지붕 위에 택시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며, 거리에 따라 승객과의 흥정을 통해 요금이 결정된다. 요금은 2Km 정도에 약 1만 디나르 수준이나 택시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미니버스(주로 한국 베스타 승합차)가 바그다드 시내에 운행돼 구간별로 이용할 수 있으나 출발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노선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버스 요금은 외국인의 경우 500 디나르 수준이지만,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다.

렌터카 이용 시 기사를 포함할 경우 하루 이용료는 50~60달러 수준이며 기사의 영어 구사 능력에 따라 이용료는 달라진다.

□ 바그다드에서부터 장거리 출장 시

이라크 북부지역인 모술, 키르쿠크, 아르빌 등지를 출장 갈 경우, 바그다드에서 모술까지는 거리가 400km이며, 소요시간은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3시간 30~4시간 정도이다. 편도 요금은 75~125달러 사이이다.

바그다드에서 키르쿠크까지는 거리가 300km이며, 소요시간은 3시간~3시간 20분 정도이고, 편도 요금은 60~100달러이다.

바그다드에서 아르빌까지는 거리가 470km이며, 소요시간은 5시간~5시간 30분이고, 편도 요금은 100~150달러이다.

바스라의 경우 바그다드에서는 500km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승용차로는 소요시간이 4시간 정도이고, 편도 요금은 120150달러 이다. 한편, 낫시리아의 경우에는 바그다드에서 400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요시간은 4시간 정도이고, 편도 요금은 80~100달러이다.

2) 통신

□ 유선 전화

전쟁으로 파괴되었던 바그다드 지역 유선 전화망이 미국 국제개발청(USAID)의 지원 하에 일부 복구되어 시내 전화를 사용하고 있으나 통화 품질이 좋은 수준은 아니며, 시외 혹은 외부로의 국제전화는 통화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팩스 서비스는 거의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06년에 전화 회선 수가 인구 100명당 4회선으로 '01년 2.9 회선에서 증가해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인 도훅, 아르빌, 술레이마니아 지역에도 유선 전화가 개통되어 있으며 연결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국제전화 서비스 이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키르쿠크 지역도 지방 유선전화가 개통되어 바그다드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라크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이라크나 핸드폰의 경우에는 0082-지역번호-전화번호를 차례로 누르면 된다. 현재 국제전화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이라크로 전화할 경우에는 001(2)-964-1(유선), 001(2)-964-79(휴대폰)- 전화번호를 차례로 누르면 된다.

○ 이라크에서 한국으로 수신자부담 전화를 거는 방법은
- 현지 유선 전화에서 “165”를 누른 뒤
- 영어로 안내 방송 시 “3082”를 누르고,
- 한국어로 안내방송에 따라 데이콤 교환원과의 연결을 통한 서비스는 “0”을 선택한 뒤, 한국 상대방번호를 알려주면 통화가 가능하며,
- 직접 번호를 누르기 위해서는 “1”을 선택한 뒤 한국 상대방 번호를 직접 누르고 통화

□ 휴대 전화

2004년 1월 초부터 ORASCOM에 의해 휴대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IRAQNA, MTC, ASIA-CELL 등 3개 통신사가 휴대전화 서비스를 임시로 제공해 왔다. IRAQNA는 GSM 방식으로서 바그다드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되며, ASIA-CELL이 북부지역을, 남부지역은 MTC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IRAQNA는 ‘06년 말 가입자 수가 400만 명을 넘어섰으며 휴대폰 가입자가 전국적으로는 약 800만 명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라크 전국에 대한 서비스가 아닌 바그다드 중심의 중부, 남부, 북부로 서비스가 분리되어 있다.

‘08. 8월 이라크 정부는 향후 15년 사업 면허를 쿠웨이트의 MTC(Mobile Telecommunications Co.), 이라크의 Asia Cell과 Korek Telecom 등 3개사에 입찰을 통해 새로이 부여하였다.

전화 연결이 자주 끊기는 등 통화 품질이 매우 열악한 편이며, 바그다드 시내를 벗어나면 전화를 송수신이 어려울 정도이나, 해외 로밍, SMS, 음성사서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요금은 월 기본요금이 12달러이며, 국내 전화요금은 1분에 12센트, 국제 전화 요금은 1분에 30센트이다.

충전식 휴대전화의 초기 설정 방법은 SIM 카드를 휴대폰 뒷면의 카드 슬롯에 삽입하고, 전원을 켠 뒤 PIN코드 4자리를 입력하면 휴대폰이 활성화된다. 그리고 300번으로 전화를 걸어서(언어 설정은 1번 선택하면 영어로 설정됨) 구입한 스크래치 카드의 번호(14자리)를 입력하면 통화할 수 있다. 기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33번 또는 444번으로 IRAQNA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안내 받으면 된다.

□ 인터넷 사용환경

후세인 정권 하에서는 인터넷 접근이 정부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었으며, 극히 일부 이라크 인들만 이용이 가능하였다. 2002년에 이라크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2만5,000명 수준으로 아주 낮았으나, 2003년 이후 이라크 독자적인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PS)인 Uruklink가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어 몇몇 외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환경이 조성되어 인터넷 접속이 일상화되고 있다. ‘06년에 인터넷 사용인구가 36만 명에 달했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무선 인터넷이 주로 이용되고 있고, 주요 인터넷 사업자는 Uruklink, ALJAZEERA TELECOM 등이 있다. 인터넷 이용료는 회사용의 경우(1024kbps download 속도, 128Kbps upload 속도)는 월 600 달러 수준이다. 호텔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 우편발송

국내우편은 일반우체국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국제우편도 속달우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용 가능한 특사우편 업체 및 서비스내역

회사명	서비스 유형	요금 (BaghdadKorea)		배달 기간 (일)	연락처
		0.5 kg	1 kg		
ARAMEX	Express Mailing	US$ 35	US$ 55	13~14	Al-Kharradeh / Al-Wehdeh neighborhood Zoqaq 904 Street 6 Building 15, Phone: +964 (1) 7193638 Mobile: +964 7901 913625 Email: Baghdad@aramex.com
	Fright / cargo (45kg and more) BGW-ICN	US$ 12 / kg		10~12	
DHL	Express Mailing	US$66 Doc	US$88 Doc	3~4	Baghdad office International Cargo Village Branch Representative: Palestine International Hotel Phone:+964(1)7470875/7470876 Mobile:+964 7901 909520 Email: bgwexb@dhl.com
		US$90 Goods	US$112 Goods		
	Fright / cargo (50kg and more) BGW-ICN	US$ 23 / kg			
FEDEX	Express Mailing	US$43 Doc	US$ 58 Doc	4~5	Branch Representative : Al Hamrra Suite Hotel Hay al-Jamiaa / Al-Jadriah / Dist. 913 - Lane 10 Phone:+964(1)7190413/7190426 Mobile:+964 7901 585297 Email: fedxalhamra@yahoo.com
		US$60 Goods	US$ 82 Goods		
	Fright / cargo (45kg and more) BGW-ICN	US$ 20 / kg			
TNT Express	Express Mailing	US$60	US$ 80	4~5	Kharradeh, Al-Watheq Sq., Hay Wihada, 52 St., opposite police station Dept. Phone: +964 (1) 719 5985 Mobile: +964 7901 9915357 Email: alhamadintrnational @yahoo.com
	Fright / cargo (45kg and more) BGW-ICN	US$ 14 / kg		10~14	
Iraqi Telephone and post Office	Fright Cargo BGW-ICN (Expressparcels)	US$ 30 / kg		14~15	Republic of Iraq Iraq Telephony & Post office Company Baghdad Post Office Center / Parcel Dept. Phone: +964 (1) 5372817 /5372829 (Complete recipient address should be mentioned to be ac knowledged by them)

3) 공 항(Airport)

이라크는 전국에 걸쳐 108개의 공항 및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국제공항은 바그다드 및 바스라, 아르빌, 술레이마니아 등 4곳이고 키르쿠크와 모술에는 그보다 규모가 작은 공항이 있다. 그리고 '08. 7월 개장을 목표로 이라크 시아파의 성지인 나자프에 국제공항을 건설 중이며, 카르발라에도 공항을 건설 중에 있다.

이라크 내 모든 공항은 지난 수년간 유지보수 중단과 장비 부족으로 노후화 되었으며 전쟁 이후에는 공항 운영인력의 부족 속에 정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바그다드 국제 공항은 미국계 공항관리회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저항세력의 위협으로 이착륙 시 급선회 회전비행을 하고 있는 등 정상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46년에 창설한 국적 항공사 Iraqi Airways는 '03년 전쟁 직전까지 13년간 국제선 운항을 중단했다가 2004.11월부터 요르단, 시리아 노선 운행을 재개했으며 점차 운행 노선을 늘려서 '07년 6월 현재 추가로 두바이, 테헤란, 카이로 등 국제 노선과 바스라, 아르빌 등 국내 노선을 운행 중에 있고 유럽 주요 도시로의 운행도 검토 중에 있다. 이라크 정부는 노후화된 항공기를 교체하기 위해 미 보잉사와 신형 비행기 구입 및 임차계약을 '08년 초 체결하여 항공사 정비에 힘쓰고 있다.

국적기인 이라크 항공 이외에 바그다드 국제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전세기 사업자는 모두 5개사로서 이중 3개사가 요르단 암만-바그다드 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쿠웨이트-바그다드 1개사, 바레인에 허브를 둔 DHL사 등이 있다. 암만 노선의 경우 요르단 항공, 에어서브(AIR SERV INT'L), HESTON/SAFAIR 3개사가 운행하고 있고 쿠웨이트의 경우 스카이링크(SKYLINK)가 전세기를 운영하고 있다.

공항 재건 프로젝트는 미 국제개발처(USAID)가 벡텔사에 발주했으며 공항 운영은 SkyLink AIR와 Logistic Support가 담당하고 있고, 바그다드 및 바스라 영공 항공 안전 및 관제 업무는 CPA가 맡았으나 임정 출범 이후 이라크 교통부로 이관되었다.

4) 교 통(Transportation)

이라크로 반입되는 물자는 '03년에 일일 평균 약 65천 톤으로 이는 군수물자를 제외한 순수 민간 반입량만 계산한 통계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UN산하 UNJLC(참고: United Nations Joint Logistics Center: www.unjlc.org)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라크 행 화물은 남부 움카스르 항구, 터키, 요르단 및 시리아 등 4개 지역을 통해 각각 비슷한 물량이 반입되고 있는데 요르단 국경 트레빌 세관을 통한 물량이 타 세관보다 약간 많은 일일 약 16천 톤 정도이다. 참고로 움카스르를 비롯한 남부지역 항구로 반입되는 물량이 일일 15천 톤, 터어키 실로피·자코 국경이 15천 톤, 그리고 시리아 국경을 통하여 13천 톤씩 들어오고 있다.

□ 도로

이라크의 도로 총 연장은 약 24천 마일로 이 중 약 85%가 포장도로이다. 노면관리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대부분 1970~80년대에 건설되었으며 이후 유지 보수를 받지 않은 상태이다. 교량, 특히 바그다드 주변의 교량은 군 장비 및 과적차량 운행으로 인해 많이 노후화되어 대대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다.

주요 간선도로는 요르단 서부 국경에서 바그다드를 잇는 고속도로, 바그다드↔바스라 고속도로 등이며, 이들은 모두 왕복 6차선 도로이다. 한편, 바그다드↔바스라 노선의 경우 바스라 북쪽 94마일의 구간이 공사를 아직 완료하지 않은 상태이다.

간선도로보다 한 단계 낮은 주요 도로는 왕복 4차선으로서 주로 군사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며,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2차 도로는 비포장 상태이거나 대대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전국에 걸쳐 1,100개의 교량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시급한 유지 보수를 필요로 하는 3개 교량은 Al Mat, Tikrit, Khazir 다리이다.

주택건설부(MOHC) 산하 국영 도로공사(SCRB)가 고속도로 및 국도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 철 도

이라크의 철도는 총 5개 노선으로서 107개 역이 있으며, 총 연장은 1,525마일 정도이나 그 중 절반 정도는 시급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루 평균 10회 운행하는 정도이며, 약 150량의 기관차, 150량의 승객수송용 객차, 8,000량의 화물용 평상 트레일러를 보유하고 있으나 정상 운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개보수가 절실한 상태이다.

- ○ 바그다드-바스라-움카스르 노선
- ○ 바그다드-모술-시리아 노선
- ○ 바그다드-알 라마디-알 콰임 노선
- ○ 알 콰임-아카샤트 노선
- ○ 키르쿠크-바이지-하디사 노선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노선은 바그다드-바스라-움카스르 노선으로 움카스르 항구 로부터 반입되는 물자를 바그다드를 포함 전국 각지에 수송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현 노선은 1950년대 이후 한 번도 제대로 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노후화되었으며 벡텔사와 이라크 철도공사(IRR)가 72km 상당의 유럽형 철도를 신설 추진한 바 있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하루 30회 기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 항 구

이라크의 항만은 모두 6개이나 수심이 얕아 움카스르 항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국제 항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6개 중 3개의 항구는 샤트알 아랍 수로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대적인 유지 보수를 하지 않고선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샤트알 아랍 수로는 수심이 얕을 뿐 아니라 침적토, 치안 불안, 거룻배용 가교(架橋) 등의 장애가 있어 대형 선박이 이용할 수 없고 경제성도 떨어지고 있다.

바스라항은 1980년대 이란-이라크전 이후로 계속 폐쇄되어 왔으며 움카스르 항은 1991년 1차 걸프전 때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나 정상 개항 중이다. 움카스르, 바스라 항구 모두 대대적인 유지보수, 크레인 설치, 준설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움카스르 항구의 경우 연합군으로부터 항구 운영권을 인계 받은 이라크 항만청이 관리하고 있는데 안전 때문에 비교적 치안이 확보된 항구 북쪽 역에서 대부분의 하역작업이 이루지

있다. 이라크 항만청은 안전 조치의 하나로 범선의 움카스르항 출입을 제한하여 이들 범선 규모가 작은 항구인 코르 알 주바이르(Khor Al-Zubayr) 항구나 샤트알 아랍 수로에 위치한 아부 풀루스(Abu Floos)항구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코르알 주바이르 항구는 Maersk가 운영하는데 식료품을 중심으로 2004. 7월 이후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이 항구 주변이 이렇다 할 마을이나 시설물이 없는 고립된 지역이어서 치안을 유지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움카스르 항구는 5m 흘수(Draft) 선박 12척이 정박할 수 있으며 (준설 전에는 수심 4m) 21개 계류장(berth)을 갖추고 있다. 두바이↔움카스르 항구 간에는 페리선이 주 3회 운항 중이며 승객, 차량 및 일반 화물까지 운반하고 있다. 움카스르 항에는 약 175천 평방 피트의 창고와 80만 평방피트 규모의 옥외 하역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철로와 도로로 연결 되어 있다. 양곡의 경우 기술적으로 한 번에 약 6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샤트알 아랍 수로를 따라 소규모 선착장이 줄지어 만들어져 있는데 항만청이 이들 소규모 선착장을 대부분 폐쇄함에 따라 수로에서 비교적 부두 시설이 좋은 편인 아부 풀루스 항구로 물량이 몰리고 있다. 이라크 항구를 통해 반입되는 상품은 주로 식량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움카스르 항구는 일일 약 1만 톤의 식량을, 코르 알 주바이르 항구는 약 500톤의 식량을 각각 처리하고 있으며, 아부 풀루스 항구는 이보다 훨씬 적은 물량을 하역하고 있다. 이 세 항구 모두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할 수 있다.

미국의 Stevedoring Servicies사가 초기 항만 운영지원 계약을 체결하였고, 벡텔사는 항만 전반의 복구 프로젝트를 USAID와 체결하여 이라크 재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oil 터미널은 Al-Baker, Khawr Al Amaya 두 곳으로서 항만 관리는 이라크 교통부가, 터미널 관리는 석유부가 맡고 있다.

사. 호텔/식당

1) 호텔

4성급 호텔의 경우 대체로 싱글은 60~70달러, 트윈은 90달러 정도이며 아침식사가 제공된다. 팔레스틴 호텔의 경우 호텔 투숙객은 무료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우나 시설 및 체력 단련실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1층의 비즈니스 센터에서는 시간당 2달러의 가격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제전화도 이용할 수 있고, 로비에는 DHL 서비스 센터가 자리 잡고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 투숙자의 경우 이보다 저렴한 싱글 기준 40~50달러대의 호텔이나 일일 30달러대의 퍼니쉬드 아파트 거주도 가능하며, 호텔 이용 시 팁은 통상 250디나르권 지폐 3~4장이 적당하다.

다음은 바그다드에 소재한 주요 호텔이다.

○ Babylon Hotel
- Al Jaderiyah 지역. 총 객실 수 300개
- 전화: +964-1-7781964/7788521
- 이메일: gilgamish@uruklink.net
- 63$(싱글), 80$(트윈), 조식 포함
- 현지인들이 주로 투숙하여 비교적 안전한 편

○ Palestine Merdien Hotel
- Al-Sadoon St., Firdous sq., 지역. 총 객실 수 400개
- 전화: +964-1-7470874/7470675
- 이메일: palestein_hotel2003@hotmail.com
- $80(싱글), $100(더블), $120~$170(스위트룸) 조식 포함

○ Coral Palace Hotel
- Hay al Wihda, Al-Wathiq sq지역. 총 객실 수 30개
- 전화: +964-1-7198803
- 팩스: +964-1-7170868
- 이메일: coralp_h@yahoo.com
- $80(싱글), $100(더블), $130(비즈니스 스위트). 조식 포함

○ Ishtar Sheraton Hotel
- 팔레스틴 호텔 맞은 편. 전후복구 계약업체, 언론사 취재진 주로 투숙
- Al-Sadoon St., Firdous sq 지역, 총 객실 수 310개
- 전화: +964-1-816 0093/817 2541
- 이메일: ishtar@burntmail.com
- $80(싱글), $90(더블), $110(스위트룸). 조식 포함

○ Rimal Hotel
- Karada ST., Al-masbah 지역, 총 객실 수 58개
- 전 화: +964-7901 900 759,
- 이메일: rimalhotel@warkaa.net
- $130(싱글), $160(더블), $200(스위트룸). 조식 포함

○ 그 밖의 호텔
- Cedar Hotel(Tel: +964-1-7198726, Baghdad, $100)
- Sebel Hotel(Tel: +964-1-7177217, Baghdad, $70)
- Rasheed Hotel(Tel: +964-1-8861000/8851000, Baghdad)
- Al Hamra Hotel(Tel: +964-1-7786982, Baghdad, $70)
- Erbil International Hotel(Tel: +964-65-2234460/70, Erbil)
- Jiyan Hotel(Tel: +964-62-7221702/6690, Duhok)
- Miharko Hotel(Tel: +964-532-3141306, Sulaimany)
- Shat Al Arab Hotel(Tel: +964-40-418592, Basrah)

2) 식당

바그다드에는 한국식당이나 일식당은 전무하며, 이라크 치안상황 악화로 외국인이 안전지대 밖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여 아래 내용은 주로 현지인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을 참고하기 바란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식당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지 않으며, 보통 점심은 13:30, 저녁은 19:00 이후에 시작되고, 고급 식당들은 2003년 전후 가격이 올라 보통 1인당 $ 8~10 정도 소요된다. 현금 결제만 가능하며 현지화가 기준이나 달러를 받기도 한다.

전후 치안상황 악화로 심야 영업을 하는 곳은 거의 드문 편이며, 밤 10시 이후에는 대부분의 식당이 문을 닫는다. 서양인이 자주 출입하는 식당이나 유명 식당은 테러 공격 대상 이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라마단 기간 중에는 야간에만 식당을 오픈하고 있다.

이라크 현지 음식은 짠 편이어서 비교적 한국사람 입맛에 적합하지만, 장기 출장 시에는 볶음 고추장이나 고추장, 된장, 김치 등을 휴대하면 투숙 호텔에서도 직접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다. 일반 호텔에서는 보통 가스 오븐, 냄비 등을 갖추고 있어 3~4인용의 작은 전기 밥솥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 유명 중국 식당.
- 사둔 스트리트: 바그다드 국립극장 옆, 중국인 요리사 있음.
- 호텔 함므라: main dish 하나에 5~6불. 비교적 맛이 있음.
- 호텔 바빌론: 함므라 호텔과 비슷한 가격이나 맛은 보통임.

이라크 전통 음식으로는 꾸지(양고기), 잉어 고기요리(마쓰코프), 닭고기(디쟈지) 요리가 유명한데 닭고기는 보통 길거리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1마리에 약 8달러이다.

주요 식당(바그다드 내 first class 식당)

연번	식당명	위 치(주소)	전화번호(+964-1-)
1	Al Matheef	Abu Nwas St.	8878725
2	Al Sa'ah	Mansoor 14 ramadan St.	5432338
3	Al Finjan	Hay Al Wihda, St. 62	7174473
4	Al Qasr Al Sharqi	Al Wathiq St.	7182886
5	Al Istoora	Arasat Al Hindia	7186729
6	Al Tahoona		
7	Al Hamraa	Muaskar Al Rasheed St.	7190809
8	White palace	Al Masbah	7194608
9	Al Bakoora	Al Nidhal St.	7195688
10	Al Zaytoon	Abu Nwas St.	7192849
11	Burj Al Umaraa	Hay Al Wihda, 52 St.	7199875
12	Khan Marjan	Al Rasheed St.	8884077
13	Shaheen	Al Masbah	7192064
14	Shat Al Arab	Soq Rajwan	7188016
15	Qasr Al Sunober	Al Sadoon St.	7186808
16	Al Meezan	Arasat Al Hindia	7170625
17	Azad Kamal	Al Sadoon St.	7198534
18	Al Mazraa	Karrada Meriam	8842451
19	Al Bait Al Thaahbi	Al Masbah	7186993
20	Al Sayer	Al Mansoor 14 Ramadan	5415988
21	Al Minwar	Karrada Dakhil	7188397
22	Al Shummo'	Al Sadoon St.	7181791

연번	식당명	위 치(주소)	전화번호(+964-1-)
23	Al Sahan	Al Sadoon St.	7188999
24	Al Azayim	Al Sadoon St.	7192058
25	Al Baho	Al Nidhal St.	8871264
26	Abo Laith	Al Sadoon St.	7199200
27	Al Sindbad	Karrada Kharij	7763681
28	Al Naqqar	Palestine St.	
29	Al Saee	Palestine St.	7729823
30	Al Tbeekh	Al Sadoon St.	8852917
31	Al Jadda	Al Mansoor	5420488
32	Al Marah	Hay Al Wihda	7189309
33	Al Hasnaa	Al Sadoon St.	7186441
34	Al Khayzaran	Al Aadamia	4222010
35	Al Sahal Al Akhthar	Al Aadamia	4222666
36	Spinich	Al Sinaa St.	7181054
37	Al Yanboo	Al Masbah	7197668
38	Abo Husam	Al Rasheed St.	8888859
39	Al Shadoran	Al Sadoon St.	7192396
40	Al Mawal	Palestine Str.	4156856
41	Al Hudoo	Al Sadoon St.	7183448
42	Al Taybat	Al Sadoon St.	7172720
43	Al Anab	Al Mansoor	5432361
44	Al Gareeb	Al Nidhal St.	7181189
45	Al Qubtan	Arasat Al Hindia	7182711
46	Al Marzooq	Al Aadamia	5427499
47	Nabeel	62 St.	7618742
48	Al Awael	Al Taharyat Sq.	7186125
49	Al Damya	Baghdad Al Jideeda	7625940
50	Al Qalaa	Arasat Al Hindia	7191815
51	Babeesh	Arasat Al Hindia	7768247
52	Bayara	Al Bataween	8850608
53	Khaliat Al Asal	Al Nasir Sq.	8884077
54	Khan Dijaj	Al Sadoon St.	7198140
55	Robyan	Al Sinaa St.	7199754
56	Rukn Al Azayim	Al Mansoor	5432409
57	Shmesani	Karrada Out	7761973
58	Sadr Baghdad	Hay Sumer	7127401
59	Abdullah	Alawi Jameela	8835581
60	Fawanees	Al Sadoon St.	7182426
61	Qamar Al Zaman	Arasat Al Hindia	7193594
62	Kabab AL Mathaq	Palestine St.	4164286
63	Karawan Kabab	Karrada Out	7189783
64	Marhaba	Al Wathiq St.	7187412

아. 관공서 관행

1) 관공서 접촉에 인내심 필요

이라크의 관료조직은 권한의 하부이양이 미흡하여 사소한 건도 장관 결재를 득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책임 회피성 관료주의가 만연해 있다. 공문서 하나를 발급 받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근거서류를 여러 차례에 걸쳐 보완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는 등 처음부터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전쟁 이후 대부분의 관공서 정상 가동 중이나 업무효율은 크게 떨어져

전쟁 중 석유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부처 건물들은 약탈당한 집기류를 아직 갖추지 못하여 좁은 임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공서 사무실 방문 시 대체로 근무공간이 협소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근무 태도도 상당히 느슨하다.

3) 공무원에 대한 뇌물, 부정부패 만연

치안 질서가 확립되지 않아서인지 중앙 부처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상당 수준이며, 뇌물과 선물 수수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는 듯하다. 2005.5월 출범한 과도정부는 출범즉시 공직자 부패 수사처를 설립하여 고위공직자의 부정 부패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에 착수하는 등 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근절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자. 공휴일

이라크 2008년 공휴일

연번	월	일	이슬람력	구 분
1.	1월	1		신년
2.	1월	6		국군의 날
3.	1월	10	Muharam 1st	Hijra new year 1427
4.	1월	19	Muharam 10th	Ashora Day
5.	3월	20	Rabiee AL-Thani 12th	모하메드 탄신일
6.	3월	21		청명(Spring Day)
7.	4월	9		독립기념일
8.	5월	1		노동절
9.	7월	14		혁명기념일
10.	8월	1	27 Rijab	모하메드 승천일
11.	10월	2-4	1-3 Shawal	Islam Feast days
12.	12월	9-12	10th Thi AL- Heja	Big Islam Feast
13.	12월	25		Christmas Day

1) Official Anniversaries and Holidays

- ○ January 1st : New year Day
- ○ January 6th : Foundation of Iraq Army

- March 21st : Spring Day
- April 9th : Iraq's liberation day
- May 1st : International labor day
- July 14th : Anniversary of 1958 revolution, changing the rolling Regime from
- Kingdom to Republic
- December 25th : Christmas Day

2) Religious Anniversaries and Holidays according to Hijri dating (Islamic calendar)

- Month and Date Anniversary
- Moharram 1st Hijri News year
- Moharram 10th Martyrdom anniversary of Imam Hussein (RA)
- Rabiee AL- Thani 12th Prophet Mohammad (SA) birthday day
- Rijab 27th Prophet Mohammad Ascension Day
- Month of Ramadan Fasting month (not holiday) for Moslem community
- Ramadan 27th Ramadan 27th Night of AL Qader(the night when holy Quran recited by Angel Jibareal to prophet Mohammad (SA)
- 1-3 Shawal (three days) Islam Feast days (Eid Al-Feter)
- 10th Thi AL- Heja (four days) Big Islam Feast (Eid AL- Adha)

차. 유용한 연락처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이라크 한국 대사관	964-1-778-5405/8	873-763-620-360
KOTRA 바그다드무역관	964-1-776-1554	
KOICA(한국 국제협력단)	1-914-822-9169 1-964-822-9170	
경찰 범죄신고	130	
ARAMEX	964-7901-395-492	
국제학교(BIS SCHOOL)	1-914-822-5041	
IRAQI AIRWAYS	964-1-537-5667	
ROYAL JORDANIAN	964-1-816-6088	
MINISTRY OF COMMUNICATIONS	1-914-822-4832	
MINISTRY OF HOUSING & RECON-STRUCTION	1-914-822-4831	
MINISTRY OF ELECTRICITY	1-914-822-4828	
MINISTRY OF FINANCE	1-914-822-481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914-360-3867	
MINISTRY OF INDUSTRY & MINER-ALS	1-914-360-3870	
MINISTRY OF OIL	1-914-360-5134	
MINISTRY OF PUBLIC WORKS	1-914-822-4816	
MINISTRY OF TRADE	1-914-822-4814	
MINISTRY OF TRANSPORTATION	1-914-822-4813	
MINISTRY OF WATER SOURCES	1-914-822-4821	
MINISTRY OF PLANNING	1-914-822-4817	
DHL	1-914-360-6354	

카. 여행 시 유의사항

자살 폭탄 테러, 외국인에 대한 납치·살해 및 테러가 지속되고 있어, 2004. 6월 김선일 납치 피살 사건 이후부터 한국인의 이라크 지역 입국이 금지되었다.

'06년 8월 이후부터 암만 주재 이라크 담당기업 지상사들은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에 한해 외교부 경유 NSC 승인을 득하여 단기 방문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으며, '07년 2월 이후부터는 여권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하여 일정기간 내의 복수 입국 허용 및 동일 사안 추가입국 허용 등을 진출 허용 시 명시하여 기업진출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여행 금지 조치가 제한적으로 완화되었지만, 이라크의 치안 상황이 일거에 좋아질 수 없을 것인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 없이 바그다드 시내는 물론 위험한 시 외곽 지역으로의 여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다 '07. 8월 이후 이라크 입국 제한을 더욱 강화하여 입국 허가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입국 제한 조치는 '08. 8월에 1년 더 연장되었다.

다만 쿠르드 지역은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몇몇 우리 기업들이 건설 부문, 유전개발 프로젝트 등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일일 100건 내외의 테러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중이 모이는 공공장소 출입은 절대 삼가야 할 것이며, 테러 다발지역인 미군 시설물 근처, 사드르시티, 라마디-팔루자 간 고속도로 등지에 대한 방문은 절대 삼가야 한다. 미군 순찰차량으로부터도 가급적 멀리 떨어져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라크는 각종 강도, 절도 등의 범죄가 빈번해 생활 치안도 몹시 열악한 상태로 특히 현지 물정에 어두운 외국인 대상의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혼자서 거리를 배회하거나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을 하거나 많은 현금을 소지하는 것을 절대 삼가야 한다. 택시 운전사가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택시보다는 투숙호텔이나 기타 믿을 만한 곳으로부터 소개 받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에서는 아직 여행자 수표나 신용카드가 통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금을 최소화하여 현금은 투숙 호텔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유리하다.

타. 관광명소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이라크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자취를 더듬을 수 있으나 이라크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관광목적이나 사업 등 여하한 명목으로도 한국인의 이라크 입국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1) 바그다드

□ 이라크 박물관(Iraq Museum)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체계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이며 선사시대, 수메르 도시 국가 시대, 악카드, 고대 바빌로니아, 앗시리아, 사산조, 압바스조 등의 유물이 시대별로 잘 분류되어 있고 우르(Ur)에서 출토된 장신구나 다른 유물들도 소장되어 있으나 2003년 전쟁 시 대부분 약탈되고, 훼손되어 이전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다.

☐ 칸마르잔(Khan-Marjan)

중세시대 바그다드 건물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건물 중 하나이다. 과거 대상들의 숙소로 사용되었으며, 1935년 복구되어 한때 박물관으로 사용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외국인용 관광 레스토랑으로 개방되고 있다.

2) 바그다드 교외

☐ 바빌론 (Babylon)

Baghdad 남쪽 90km 지점에 있으며,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의 수도로 약 4,000년 전에 흙, 벽돌로 축성되었다. 발굴 시에는 성벽의 하단부 등 일부만 남아 있었으나 1980년대에 성벽을 복원하였다.

☐ 바벨탑

성서에도 언급된 유적지로서 바빌론 유적지에 인접해 있으며, 현재는 주춧돌의 흔적만 남아 있다.

☐ 사마라 달팽이 탑

바그다드 북쪽 120km에 위치하고 있는 이라크의 주요 성지 중 하나인 사마라에는 높이 50m의 나선계단으로 이루어진 달팽이 탑이 있으며, 첨탑은 그 당시 제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